

2008. 11
굿모닝인천



세계 명품도시 · 캐나다 몬트리올

Good Morning
INCHEON

인천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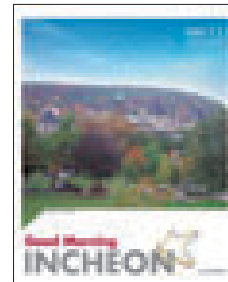
Good Morning
INCHEON

| 세 | 계 | 일 | 류 | 명 | 품 | 도 | 시 | 인 | 천 |

2008. 11

CONTENTS

November 2008 통권 179호



표지에 담는다

세계 명품도시 ⑩ 캐나다 몬트리올(사진:이형준)

Fly Incheon_

- 04 현장
- 12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 14 Eco Report
- 16 Zoom in
- 22 Fly Incheon News
- 26 웰컴 투 인천
- 27 군·구 소식
- 29 시의회 Zoom in
- 30 시의회 소식
- 36 세계 명품도시 탐방 ⑩
- 57 스페셜 Info
- 58 영화회화로 인천배우기

송도컨벤시아 개관
꿈꾸는 도시는 아름답다
강화 매화마을 람사르 습지 등록
인천 수돗물 전국 수질검사 1위
‘인천대교 준공 D-365’ 외
‘김창준 前 하원의원 국제고문 위촉’ 외
‘중국어마을 선포’ 외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신설 촉구
‘제169회 임시회 진행’ 외
캐나다 몬트리올
제7회 ITC 2008 인천국제정보산업전시회
시립박물관

Incheon Life_

- 06 인천의 가을
- 08
- 10 정보뱅크
- 32 브리핑
- 34 Healthy Life 건강백세
- 43 생활법률, 아하 그렇군요
- 44 함께 사는 세상
- 52 Info Box

① 인천대공원 수목원
② 인천의 단풍길
도담도담 장난감도서관
대중교통 및 여객선운임 할인제
깡년기 증후군
혼인생활과 조세
인천의 상단·지원 기관
‘지식재산센터 이용하세요’ 외

Incheoner_

- 20 인천역사 책갈피
- 28 뉴스 포커스
- 31 모닝 인터뷰
- 35 김치찰각
- 40 막스막다
- 48 만화로 보는 인천인물 열전 ⑩
- 50 독자글마당

‘잔물’에서 ‘참물’까지 100년
인천시 시민상·문화상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위원장, 산업위원회 한도섭 위원장
‘누구 말이 더 클까’ 외
‘남궁옥분 인천에 오다’ 외
세계의 나그네, 지구의 방랑자 김찬삼 교수
‘선생님 텔레비전 망가졌어요’ 외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4) / 광고문의 (032-440-3052)

발행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8년 11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
편집인 공보관 김진택
공보담당 사무관 조형도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편집위원 정경숙
사진 심영보·하장원(시 공보관실)
김성환(포토저널리스트)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성광디자인(주)
인쇄 (주)해동종합기획
〈굿모닝인천〉은 <http://goodmorning.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앙드레김의 로망스로 화려하게 출발

첨단 유비쿼터스 전시·컨벤션센터인 송도컨벤시아가 지난 10월 7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서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관 축하행사로 패션디자이너 앙드레 김의 패션쇼가 화려하게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글·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하장원 시 공보관실



1



2



3



4

1. 앙드레김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안상수 시장
2. 패션쇼 무대에 선 각국 대사들
3. 패션쇼의 의상모델이 된 안상수 시장
4. 송도컨벤시아 개관식

송도 컨벤시아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축면적 5만4천㎡ 규모로 최대 2천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프리미어볼룸을 비롯해 각종 회의실(23실)과 450개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전시장(8천400㎡)을 갖춘 최첨단 컨벤션센터다. 세계적인 건축설계업체인 KPF가 디자인했으며, 단층 무주공법으로 건설돼 기둥이 하나도 없는 것이 특징이며 외관은 태백산맥을 형상화해 한국의 미를 살렸다.

송도컨벤시아는 인천국제공항과 동북아 물류의 중심인 인천항이 근접해 있고 특히 중국과 일본, 대만 등 비행거리 3~5시간 내에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 51개가 자리잡고 있어 세계적인 컨벤션센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송도컨벤시아는 국제회의 유치 증대와 도시 발전 등에 따라 향후 4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마련 중인데 전시장 2개 동과 지원시설을 더 짓는 1단계 사업은 2012년 상반기에 완료된다.

운영을 맡게 될 인천관광공사 측은 각종 국제회의와 기업회의, 패션쇼, 세미나 등을 연간 180회 이상 유치하고, 전시회도 매년 30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관에 즈음하여 세계약기박람회와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를 이미 성공적으로 치렀고 내년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맞춰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관광학회(APTA)총회, 국제도로교통박람회, 인천국제정보산업전시회 등 올해 22건, 내년 30건 등이 예약돼 있다.

전시·컨벤션 산업은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송도컨벤시아는 생산 유발 1천996억원, 부가가치 유발 837억원, 고용 창출 2천78명 등 3천3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개관식에는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스탠 게일 미국 인터넷서널 회장,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안상수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송도컨벤시아는 동북아의 비즈니스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 아시아경기대회를 거치며 인천을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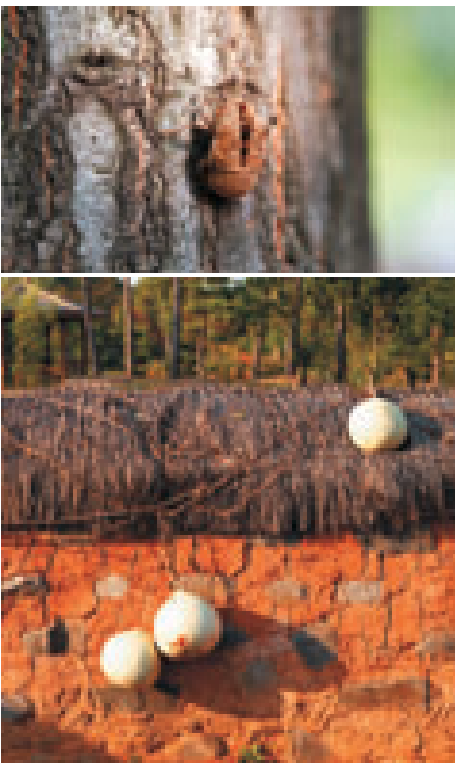
패션디자이너 앙드레김은 배우 한채영과 이상우를 메인 모델로 내세워 눈 내리는 밤의 잊을 수 없는 로망스 ‘2009년 Autumn & Winter 컬렉션’을 화려하게 선보이며 개관을 축하했다. 특히 안 시장을 비롯해 네델란드 등 각국 대사와 그 부인들이 패션모델로 무대를 밟아 눈길을 끌었다. 🍁



오감_{五感}으로 즐기는
도심 속 시크릿 가든

빛이 아니었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색깔을 볼 수 있었을까. 빛의 고마움을 새삼 실감할 수 있는 요즘이다. 우리 인천에는 일상에서 벗어나 조금만 발걸음을 떼어도 곳곳에 가을 ‘눈 맛’ 즐길 수 있는 곳이 많다. 그 대표적인 곳이 인천대공원이다. 최근 그 공원 한구석에 ‘비밀의 화원’이라 할 수 있는 수목원이 개장했다.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1	4
2	5
3	6

- 1. 해안사구원의 모습
- 2. 수목원 정문
- 3. 역사가 핀 수목원 오솔길
- 4. 나무에 붙은 허울벗은 매미
- 5. 수목안에 재현해 놓은 농가
- 6. 고즈넉한 수목원 길



계절마다 다른 빛깔을 완연하게 보여주는 인천대공원은 단풍도 한 가지 색조가 아니다. 갈색으로 물드는 참나무류와 붉은색 단풍나무, 그리고 진초록의 잣나무들이 어우러져 마치 물감을 짜놓은 팔레트 같다.

관모산과 상아산을 배경그림으로 삼고 있으며 장미원, 식물원 등 테마별 공원을 지니고 있어 계절의 변화를 뚜렷이 느낄 수 있는 인천대공원에 최근 새로운 숲 공간이 생겼다. 우리시가 2004년부터 23만㎡가 넘는 부지에 조성해 지난 10월 2일에 개장한 수목원이다. 이 곳은 도시의 인공적인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환경에서 벗어나고픈 도시민에게 새로운 힘과 재충전의 활력을 선사한다.

새들이 노래하고 풀꽃과 나무가 향기를 뿌리는 수목원에는 현재 1천여 종의 식물 21만4천여 본이 자라고 있으며 구석구석 다양한 주제로 꾸며져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전시원은 연못으로 바닷가를, 모래둔덕으로 해안사구를 재현한 해안사구원이다. 인천지역 150여 곳의 섬에서 자생하는 순비기나무, 통보리사초 등 해안식물과 사구식물을 모아 서해안 사구식물의 서식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오감원은 청각과 미각, 촉각, 시각, 후각 등 오감으로 식물을 감별할 수 있는 공간이다. 향을 발산하는 식물을 모은 ‘냄새나는 식물원’, 만지면 독특한 촉각을 느낄 수 있는 ‘만지면 이상한 식물원’, 산들바람에 소리를 내는 식물을 모은 ‘소리가 나는 식물원’, 독특한 맛이 나는 식물을 모은 ‘맛이 특이한 식물원’, 모양이 특이한 식물을 모아둔 ‘모양이 특이한 식물원’ 등으로 꾸몄다.

사계원은 이른 봄부터 피는 매화와 목련 등 봄꽃이 어우러진 ‘봄꽃원’, 신록을 뽑내는 여름 식물과 꽃을 피우는 식물을 모은 ‘여름원’, 단풍이 아름다운 식물과 가을에 꽃을 피우는 식물을 모은 ‘가을원’ 그리고 수피와 열매가 아름다운 식물을 모은 ‘겨울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 식탁에 올려지는 열매를 맺는 식물을 모은 ‘식용원’과 병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식물을 다룬 ‘약용원’ (68종)이 있는 실용식물원, 한시와 민요, 동요, 속담, 설화 등에 등장하는 식물을 볼 수 있는 문화식물원 등이 있다.

수목원 해설사와 함께 탐방로를 따라 전시시설을 둘러보는 데는 1시간 남짓 걸린다. 입장은 무료지만 사전에 전화로 예약해야 관람할 수 있다. 하루 세 차례 각각 100명씩 입장할 수 있다. 문의 ☎ 440-4956 🍷

숲은 병원이다

숲에서는 피톤치드라는 보약이 생성된다. 우리 몸을 쾌적하게 하는 특유의 방향성 산림향인 피톤치드는 혈액을 맑게 하고 인체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잡아 세포를 활성화시킨다. 또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며, 아토피 증상 완화, 자율신경의 기능조절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놀라운 사실은 숲을 바라보기만 해도 건강이 좋아지거나 병을 빨리 낫게 한다는 의학 결과도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숲은 우울증을 낮게 한다. 산책, 삼림욕 등 숲을 이용한 활동들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훌륭한 우울증 자연치료제다. 숲에 가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진다.



우리 동네 오솔길, 가을을 머금다

가을에 자연은 시를 쓰듯 물들어 가고 사람은 차를 달이듯 깊어 간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 쫓기는 대부분의 도시민에게는 깊어 가는 가을도, 설악산과 지리산에서 날아오는 단풍 소식도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그럴 때 해답은 '가벼운 소풍'이다. 반나절의 시간만 내도 가을 풍광에 푹 젖을 수 있는 곳이 인천 곳곳에 있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역사와 가을이 만나는 강화 북문 고갯길

강화는 찾는 이들에게 역사와 문화유산, 자연을 함께 선물로 선사하는 보배 같은 곳이다. 고려왕의 피난터였던 고려궁의 돌담을 끼고 오르는 900여m의 고갯길은 가을과 손쉽게 만나는 나들이 길이다. 고려궁을 뒤로하고 다소 가쁜 숨을 내쉬며 끝까지 오르면 진송루라는 현판이 걸려있는 북문이 나온다. 아담한 성문 양 옆에는 단풍나무가 수문장처럼 버티고 서있다. 북산은 송악산이라고도 불린다. 몽골의 침략에 강화로 건너온 고려왕 고종은 개경을 그리워하며 새로 지은 궁궐을 안고 있는 북산을 송악산이라고 불렀다. 성문 누각에 올라 바라보면 울긋불긋한 단풍이 마치 양탄자를 펼쳐놓은 듯 하다. 성문을 지나 성밖 마을로 나서는 쪽 뺨은 은행나무 수십 그루가 도열하듯 서있는 풍경과 마주친다. 은행잎으로 물든 길은 땅 빛깔을 찾을 수 없게 온통 노란빛이다.

북문에서 오읍약수터에 이르는 길은 또 다른 가을 진풍경을 연출한다. 500m에 이르는 짧은 길이지만 약간 굽어 있고 유난히 낙엽이 많이 쌓여 늦가을의 정취에 흠뻑 젖어볼 수 있다.

노란물 들은 마을 남동구 만의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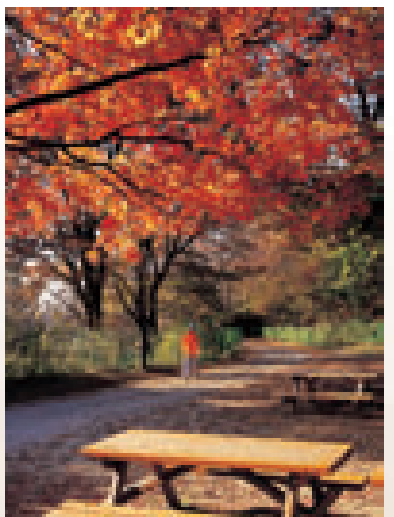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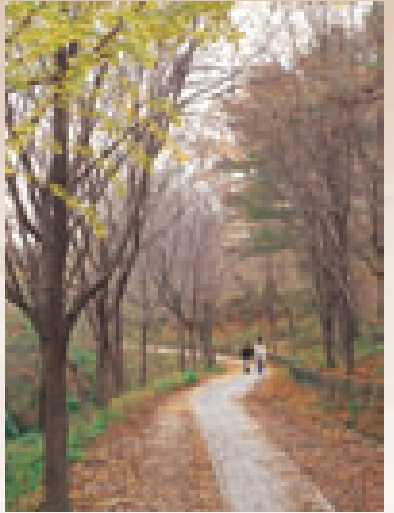
인천을 대표하는 장수 나무로 손꼽히는 만의골 은행나무는 높이 약 35m, 둘레 8m로 무려 나이가 800년이나 되는 거목이다. 화석으로도 발견 되는 게 은행나무라니 그 장수의 힘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만의골 은행나무는 그 '연세' 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계절의 변화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5개의 큰 가지에서 뻗은 수백 개의 곁가지를 품고 있는 이 거목은 나무 하나가 마치 작은 숲을 이루는 듯 해 가을이면 이 나무가 뿜어내는 노란 빛깔이 온 동네를 물들인다. 운현동 입구에서 200m 정도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소래산 기슭으로 오르는 운치있는 오솔길이 나온다. 또 이정표를 따라 오르면 김재로 묘가 나온다. 이 묘를 품고 있는 소래산은 남동구와 시흥시에 걸쳐 있는데 완만하면서도 급한 경사가 적절히 섞여 있어 반나절 등산 코스로 제격이다.

세월의 무게만큼 고즈넉한 자유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원(1897년 조성)이란 타이틀이 붙은 자유공원. 그 연조에 걸맞게 그곳 나무들의 나이테도 촘촘하다. 제물포고 뒷담길과 한미수교100주년기념탑 근처 등에는 제풀에 지쳐 떨어지는 잎, 형형색색 만개한 가을꽃과 단풍들이 가을 절경을 연출한다. 특히 인천 앞바다를 내려다보며 산보하는 순환산책길의 단풍은 자유공원의 백미. 숲은 뻗뻗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아 좋다. 나무들은 사람 키 하나만큼씩 떨어져 후두둑 후두둑 낙엽을 떨구며 색잔치를 펼친다.

만추 분위기 만끽 월미산 순환 산책로

몇 해 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월미산은 반세기 동안 군부대가 자리 잡아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덕분에 때묻지 않은 자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월미공원 입구에서부터 순환 산책로를 따라 벚나무가 터널을 이룬다. 봄이면 순백색의 꽃비를 내리던 이곳이 늦가을 단풍으로 푸석푸석해지기 쉬운 방문객의 감성을 한껏 자극한다. 산책로를 따라 쉬엄쉬엄 오르다보면 어느새 정상에 닿는다. 정상에 있는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단풍을 머금은 월미산이 발아래 펼쳐지고 멀리 자유공원 쪽을 보면 울긋불긋 펼쳐진 단풍의 향연이 황홀하다.



- | | | |
|---|---|------------------|
| 1 | 2 | 1. 자유공원 길 |
| | 3 | 2. 강화 북문 오읍약수터 길 |
| | 4 | 3. 장수동 은행나무 |
| | | 4. 월미산 산책로 |

장난감
천국으로
오세요~



장난감은 단순히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 놀잇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꿈과 환상을 키워주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좋은 친구인 장난감이 한가득 쌓인 장난감천국이 있다. 이름도 정겨운 도담도담 장난감도서관이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장난감도 빌리고, 육아정보도 나누고



만화 속에서 걸어 나온 듯한 로봇, 금방이라도 눈을 깜빡거리며 살아 움직일 것만 같은 인형... 마치 꿈속에 있는 듯 장난감이 한가득 쌓여 있는 장난감천국으로 갔다.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 지하에 자리 잡고 있는 도담도담 장난감도서관은, 인천 시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대여시설이다.

이곳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 연회비 1만원만 내면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올 5월 개관한 이래 엄마아빠의 입소문을 타고 꾸준히 사랑 받고 있다.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만해도 평균 90여 명이며 많을 때는 150여 명에 이른다.

10개월 된 아이를 둔 주부 장정란(구월동) 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아기엄마의 소개로 도담도담 장난감도서관과 인연을 맺었다. 장 씨는 “보통 장난감대여점을 이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스러운데, 이 곳은 연회비만 내면 무료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어 좋다”라며 만족스러워했다.

장난감도서관의 또 다른 장점은 놀이터와 사랑방이 마련돼 있어 아이와 부모가 휴식을 취하면서 육아정보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다. 돌이 갓 지난 아이의 아빠인 김태현 씨(석남동)는 “다른 부모들과 만나 육아 정보를 나눌 수 있어 좋다. 도서관 내 구비된 육아잡지와 각종 관련 책자도 도움이 크게 된다”고 말했다.

신나는 토이팩토리~



도담도담 장난감도서관에는 유아용 컴퓨터, 보드게임기, 어린이용 헬스기구, 그네 등 320종 1천800여 점의 장난감이 구비돼 있다. 그래서 비싸서 선뜻 사기가 어려웠던 장난감이 있거나, 장난감을 사기 전에 아이에게 잘 맞는지 알아보고 싶을 때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한달에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장난감도서관을 찾는다는 이승희(부평동) 씨는 “아이들이 장난감에 싫증을 잘 내는 데, 이 곳에서 빌린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기뻐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환하게 웃었다. 도서관에는 장난감 외에도 영유아도서 1천500여 권을 비롯해 자녀양육서와 육아잡지 등 부모들이 읽을 수 있는 책 400여 권이 구비돼 있으며,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등이 담긴 DVD와 비디오 600여 점이 마련돼 있다. 한 가족당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은 2점이며, 책은 3권, 시청각자료는 2점이다.

도서관에는 이처럼 장난감과 도서 및 영상물이 다양하게 구비돼 있지만, 우리시에서 하나뿐인 장난감도서관인 데다 워낙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인기제품을 빌리려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순번에서 밀린 부모들이 푸념 아닌 푸념을 늘어놓기도 한다고 하니, 이 곳의 인기를 가히 짐작할 만하다.

‘도담도담’은 아이들이 탈 없이 자라는 모양을 나타내는 순수 우리말이다. 그 이름처럼 박물관을 찾는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즐거워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다. 도담도담 장난감도서관 ☎ 422-7833, 4



장난감천국으로 초대합니다~

| 회원가입 및 이용방법 |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주민등록 등본 1통과 사진 1매를 지참하고 도서관 내에 비치된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한다. 연회비는 1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면제된다. 대여료는 없으며 대여일은 14일, 연체료는 하루에 500원이다.

| 이용시간 |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쉰다.

| 찾아가기 |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 지하상가 내 5번 6번 출구 사이, 롯데백화점 무빙워크 옆에 자리한다.

도담도담 장난감 BEST 5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좋은 장난감 오충사를 소개한다~ 서두르자. 대여율이 높아, 머뭇하는 사이 장난감친구들을 놓칠 수도 있다.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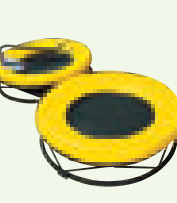
③



④



⑤



- ① 통통 튀는 아기열말 20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타고 놀 수 있는 스프링 말
- ② 걸음마 보조기 10개월에서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아이들의 걸음마를 돕는 보조기
- ③ 그랜드 피아노 건반을 누를 때마다 예쁜 소리가 울려 퍼진다~ 영어노래가 나와 교육에도 좋을 듯
- ④ 어린이용 헬스기 아이들 사이에서도 몸짱이 대세~ 유아용 자전거, 역기, 러닝머신 등이 보기에도 깜찍하다
- ⑤ 트램펄린 공중으로 폴짝폴짝 뛰며 까르르 웃는 아이들이 보이는 듯하다. 덩치가 크니 대여할 때는 아빠가 함께 올 것

꿈꾸는 도시는 아름답다

미래 첨단기술과 전 세계 문화가 한 곳에 모이게 될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이 2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개막일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궁금해지는 ‘80일간의 미래도시 이야기’의 보따리를 살짝 풀어본다. 인천세계도시축전은 2009년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송도 국제도시 일원에서 열린다.

글 · 박세훈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 미디어홍보팀 부장

5대양 6대주의 문화가 모두 모이는 하나의 작은 세계 ‘세계 문화의 거리’, 미래도시 첨단기술이 하나가 되어 관람객들을 미래로 안내하고 미래 생활을 예측하게 하는 ‘첨단기술관’, 친환경의 그린네트워크가 있는 ‘에너지 체험관’, 어쩌면 미래 가족의 일원이 될지도 모를 로봇세계로 안내하는 ‘로봇 사이언스 미래관’, 그리고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참여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다이나믹 스퀘어’ 등 80일 동안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

7가지 테마로 행복을 느낀다 다이나믹 스퀘어

주 행사장에서 펼쳐지는 다이나믹 스퀘어는 관람객이 지나는 퍼레이드 라인과 맞물려 시민들에 호기심(Curious)과 즐거움(Fun), 흥미진진(Exciting), 열정(Passion), 친밀감(Sweet), 조화(Harmony), 도전(Adventure) 등 모두 7가지 테마를 선사한다. 다이나믹 스퀘어에서는 전 세계 문화를 대륙별, 문화별로 각각의 테마에 맞춰 이벤트와 페스티벌이 열린다. 주행사장 전시공간과 이벤트공간이 상호조화를 이루면서 환상적인 워터쇼와 함께 80일간의 축제는 이어진다.



미래도시의 유비쿼터스 길을 걷는다 인텔리전트 스트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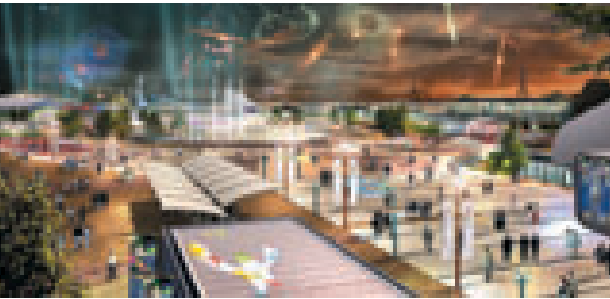
주행사장 거리는 미래 기술이 적용된 U-Street다. 모든 길은 온도와 단위 면적에 모여 있는 사람의 수 등 자연스럽게 관람객의 움직임에 반응한다. 이른바 유비쿼터스 기술이다. 관람객이 몰려있는 곳은 자동으로 전기를 증가해 전기를 밝히고, 급수도 늘리게 된다. 잃어버린 아이를 바로 찾을 수 있는 미아 찾기 시스템과 국내외 친척, 친구와 테크노 스크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첨단 스크린 시스템, 약속장소에서의 메시지 남김 시스템, 노면이 미끄러울 수 있다고 알려주는 전자센서 등. ‘아이디어 시티(Idea City)’인 주행사장을 걷는 것은 한마디로 미래를 걷는 것과 다름없다.

미래도시의 새 패러다임을 체험하다 파빌리온

미래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파빌리온. 전 세계 도시들을 한번씩은 만나 볼 수 있는 파빌리온은 주행사장 전역에 흩어져 있는 아이디어 시티의 개념을 다양한 주제별로 체험하는 공간과 인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역동적인 미래를 그리는 도시체험관이 볼 만하다. 파빌리온에서는 전 세계 도시들과 그곳에 거주하는 도시민들과 3D입체영상을 통해 네트워킹을 하게 된다. 3D입체영상이 보여주는 생생한 인천의 매력뿐 아니라 자기만의 영상메시지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파빌리온은 모든 관람객들이 ‘꿈같은 도시’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공간이다.

미래도시 인천을 제시한다 첨단기술관

총 1천평의 규모에 설치되는 첨단기술관은 도시축전의 주제를 전달하는 주행사장의 랜드마크다. 도시축전의 마스코트인 아람별이가 안내하게 될 첨단기술관은 풀 HD 3D영상으로 감동적인 10분간의 ‘미래도시 이야기’를 보여준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인 홀로그래프가 그려내는 멀티미디어쇼는 관람객들이 마치 미래의 어느 도시에서 숨을 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번쩍이는 조명과 감동적인 영상은 80일 동안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게 된다.



인천의 바람, 환경을 밝히다 하이브리드 가로등

21세기 화두는 역시 친환경. 주행사장을 밝히는 가로등은 친환경 소재인 ‘인천의 바람’을 이용한다. 주행사장 내 모두 35개가 설치될 풍력가로등은 전기를 하나도 이용하지 않고 신선한 자연에너지만을 가지고 운영된다는 점에서 미래 환경기술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빼어난 디자인으로 주행사장을 밝히는 하이브리드 가로등을 걸으면 낭만이 절로 느껴질 것이다.

“우리여기 살고있어요”

초지리에 자라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식물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3천15㎡규모의 매화마름 군락지가 최근 람사르 습지로 지정, 등록됐다. 국제사회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희귀 동식물종의 서식지인 호수, 습지, 갯벌을 람사르습지로 등록해 보호하고 있다. 논으로는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가 세계 최초이다.

글·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한국내셔널트러스트 제공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

생태·사회·경제·문화적으로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습지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으로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에서 체결되었다. 이 협약은 농경지 확장, 제방건설, 갯벌매립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습지를 범국가적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8년 10월 현재 현재 158개국이 가입해 1천782개의 습지(약 1억6천여 ha)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보호되고 있다. 1997년에 람사르 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28일 경남 창원에서 람사르 협약의 당사국 총회인 제10차 람사르 총회를 개최했다.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는 매화마름을 포함한 수생식물, 천연기념물 제205호 저어새, 천연기념물 제361호 노랑부리백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 금개구리 등이 서식·도래하는 지역으로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곳이다.

매화마름(Ranunculus kazusensis)은 물에 사는 여러해살이풀인 미나리아재비과로, 줄기의 길이가 50cm 정도로 가늘고 길며 속이 비어있고 마디에서 뿌리가 난다. 꽃은 백색으로 지름 1cm 정도로 4~5월에 꽃이 피고 꽃잎은 5개다. 6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 영등포 지역에서도 채집될 정도로 흔했던 물풀이지만 과도한 농약 살포와 개발로 지금은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이유로 환경부는 1998년 한탄, 나도풍란, 광릉요강꽃, 섬개야광나무, 돌매화나무와 함께 멸종위기 야생식물 6종 중의 하나로 지정하였다.

강화도 매화마름 군락지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시민자연유산 1호로 탄생한 곳이다. 지난 2002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경지정리로 훼손위기에 처한 매화마름 군락지를 시민성금을 조성하여 매입한 후 지역주민과 합의를 거쳐 현재 성공적인 습지관리 사례를 만들고 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멸종위기야생식물 Ⅱ급인 매화마름 보전운동으로 친환경농법이 확산되는 등 농업과 생태계의 상생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주민과 일반인이 함께 매화마름 개화시기인 5월에 맞춘 매화마름 관찰, 6월 손 모내기 7~9월 김매기 그리고 10, 11월에 가을걷이, 추수감사행사 등 정기적인 대중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공유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3년에는 화문석 전통 테마마을로 잘 알려진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에서도 대규모 매화마름 군락지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매화마름으로 인연을 맺은 두 마을은 함께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맛 좋고 질 좋은 '매화마름쌀'을 공동브랜드로 생산하기로 했다.

이번 강화도 매화마름 군락지와 함께 오대산국립공원 습지와 제주도 물장오리 습지 등도 람사르 습지로 지정, 등록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현재 '창녕 우포늪', '강원 용늪', '제주 물영아리' 등 총 11개의 지역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으며 총면적은 81,986㎢로 확대되었다. 🐦

* 지난 9월호 마니산 기사 중 마니산 높이는 468m가 아니라 469.4m임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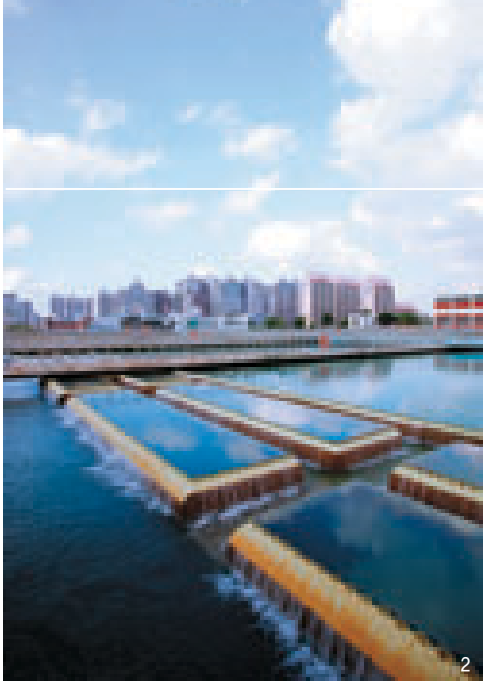




맑다, 맛있다, 미추홀참물

건강을 위해 물만큼은 정말 '간간하게' 마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미추홀참물을 마시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7개 대도시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우리시의 수돗물이 가장 맑고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1·2. 부평정수장
3. 남동정수장 내 물사랑실개천
4. 상수도사업본부 내 수질연구소
5. 남동정수장 내 물홍보관



프리미엄급 생수 등장하다

일찍이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았지만, 수년 전까지만 해도 돈을 주고 물을 마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요즘은 생수를 사서 마시는 일이 흔해졌다. 그 뿐 아니다. 고농도 산소수부터 바다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해양심층수, 히말라야산 빙하수까지 저마다 프리미엄급임을 자처하는 생수들이 식료품가게를 차지하고 있다. 사람들도 좀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길 마다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돗물을 바로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생수를 구입해 먹거나 정수기에 걸러서 마시고 있다. 사실상 수돗물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 지 오래다.

하지만 수돗물이라고 해서 시중에서 파는 생수나 정수기물에 비해 수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좋은 물은 오염 물질이 없는 깨끗한 물, 미네랄이 풍부한 물, 약알칼리성의 물,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물, 육각수가 풍부한 물 등의 조건을 갖춘다. 하지만 정작 물이 정수기를 통하면 미네랄까지 걸러질 수 있으므로 오히려 몸에 이로울 것이 없다. 또 우리나라 수돗물은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수질이 상당히 좋은 편이며 미네랄 함량도 생수와 견주어 크게 뒤지지 않는다.

인천 수돗물, 전국 제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우리나라 7대 대도시의 수돗물을 정밀검사 한 결과, 모두 법적인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시 수돗물의 수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각 지자체 수돗물의 품질을 비교, 검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서울 강북정수장, 부산 덕산정수장, 대구 두류정수장, 인천 남동정수장, 대전 송촌정수장, 광주 용연정수장,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청주정수장의 수질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수장별 취수원은 강북정수장은 한강본류, 덕산·두류정수장은 낙동강 본류, 남동정수장은 팔당호, 송촌·청주정수장은

대청호 용연정수장은 전남 화순의 동북호 등이다.
 조사 결과 우리시 수돗물의 소독부산물 함량은 다른 시 수돗물의 4~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독부산물은 미생물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기 위해 넣는 염소가 물 속의 유기화합물과 반응해 생기는 물질로, 암을 일으키거나 신경독성 작용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소독부산물로 수질기준이 1리터당 10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인 총트리할로메탄의 경우, 우리시 수돗물에선 1리터당 2.3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으나, 다른 지자체는 10~28마이크로그램 수준이었다. 수질기준 1리터당 80마이크로그램인 클로로포름 역시 우리시가 1.4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 지자체 수돗물 소독부산물 검출농도 (자료: 환경부)

구 분	총트리할로메탄 (수질기준 100)	클로로포름 (수질기준 80)
인 천	2.3	1.4
서 울	10.7	5.3
부 산	28.3	15.2
대 구	61.5	34.2
대 전	21.6	12.3
광 주	10.3	6.2
수자원공사	21.9	14.9

단위 : 수돗물 1L당 μg (마이크로그램 • 100만분의 1g)

미추홀참물 VS 생수, 미추홀 승!

미추홀참물은 안전하고 깨끗한 것은 물론 맛에서도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수와 미추홀 참물의 시음회를 연 결과 미추홀참물의 승이었다.

시음회는 인천해양축제와 인천환경기술전, 소래포구축제에 참여한 시민 1천342명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물의 온도 등 조건을 같게 하고 상표를 가리는 블라인드 테스트(Blind Test)로 진행됐다.

그 결과 시음회에 참여한 시민 가운데 62.1%인 834명이 “미추홀참물이 가장 맛있다”고 답하거나 “물맛의 차이를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는 우리시 수돗물이 입상 활성탄 접촉시설과 혼합산화제 발생기를 거쳐 생산되어, 수돗물의 최대 단점인 염소소독물의 냄새가 덜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생수에 비해 텁텁한 맛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는 해석하고 있다.



1. 각 가정을 방문해 수돗물 수질을 검사하는 품질인증제
2. 남동정수장 내 물사랑실개천
3. 남동정수장 내 물홍보관
4. 인천상수도 100주년 기념식
5.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맑음이 과학교실
6. 부평정수장



100주년 축하해주세요~

맛 좋고 물 맑은 미추홀참물의 역사는 19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수도국산이라 불리던 지금의 송현근린공원에 송현배수지가 들어서면서 인천 수돗물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수돗물 공급은 초기 7만명에게 하루 최대 111리터를 제공하던 것을 시작으로, 현재 264만명에게 매일 371리터를 공급하며 급수보급률 97.6%를 이루고 있다. 우리시 시민 대부분이 맑고 깨끗하며 안전한 물을 풍부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다. 시민과 함께 인천 상수도사업 10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도 열렸다. 지난 10월 17일과 18일 송현근린공원에서 열린 ‘제1회 미추홀참물 사랑페스티벌’에는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상수도 관계자와 시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축제 기간 동안 인기가수의 공연을 비롯한 화려한 축하무대가 열렸으며, 인천상수도 100년사가 담긴 사진과 정수시설 모형, 옛 우물 모형 등을 전시해 인천 상수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물 잘 마시면, 건강에 물 오른다~

물을 물로 보지 말라~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 제대로 알고 마시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 진다. 건강을 위해 어떤 물을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하는지 알아본다.

• 수돗물, 끓여서 마셔라

보통 수돗물을 끓이면 몸에 좋은 성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물을 끓여도 미네랄과 영양분은 파괴되지 않는다. 또 물을 끓일 때 보리를 함께 넣으면 정수효과가 높아진다.

• 물 마시는 시간은 따로 있다

물은 오전보다 오후에 마시면 더 좋다.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반면 식사하기 전이나 식사하는 도중에는 물을 마시면 소화기능을 떨어뜨려 좋지 않다.

• 수돗물, 약알카리수로 변신~

건강에 가장 좋은 물은 사람의 체액과 혈액에 가장 가까운 약알칼리수다. 수돗물도 약알칼리수로 바꿀 수 있다. 항아리에 수돗물을 받아 숯이나 맥반석을 넣고 밤새 두면 약알칼리수가 된다.

• 하루 1.5리터 이상 마셔라

피부미용과 건강을 위해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사람마다 필요한 물의 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면 좋다.

• 온도를 맞춰라

냉각시킨 육각수가 몸에 좋다는 사실은 기본상식. 육각형의 구조로 된 물은 나쁜 세균의 침입을 막고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끓인 수돗물을 냉장보관 해 마시도록 한다. 단 너무 차게 해서 마시면 몸에 좋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미추홀참물 품질인증제

전화주세요~

수돗물을 검사해드립니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수질을 검사하는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에는 수질을 형성하는 데 기본이 되는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철, 아연, 맛·냄새 등 7개 항목이 체크된다. 또 검사결과에 따라 적합한 인증서를 교부해 주며, 부적합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정밀 수질검사를 거쳐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수질검사 신청하는 곳

인천 전지역_수질연구소 ☎ 720-2211
 부평·계양구_부평정수사업소 ☎ 720-2421
 남·남동구_남동정수사업소 ☎ 720-2621
 중·동·서구_공촌정수사업소 ☎ 720-2721
 연수·남동구_수산정수사업소 ☎ 720-2821



‘짠물’에서 ‘참물’까지 100년

인간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 몸의 70여 퍼센트가 물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상식이다. 그렇듯 물은 생명 유지의 원천이어서 저 아득한 문명의 여명기부터 인류는 굳이 강가에 삶의 터전을 마련해 왔던 것이다.

글 · 조우성 시인 · 인천시 시사편찬위원

역사상 인천의 걱정거리였던 물

세계 4대 문명 발상지가 모두 강 유역이요, 오늘날 서울은 한강, 평양은 대동강을 끼고 있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물의 원활한 공급이야말로 나라를 일으켜 권력을 세우고 백성을 먹여 살리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대한 요건이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治山治水)를 정치의 근간으로 삼았던 것도 그 때문이었는데, 역사상 인천은 언제나 물의 공급이 고민거리였다. 고구려 주몽의 아들 비류가 미추홀에 이르러 나라 세우기를 꿈꾸었으나 물이 짜 건국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그 같은 인천의 물 사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의 물 사정이라면 먹을 물도 마뜩치 않았을 것이니 사람이 모여 나라를 이루기는 더더욱 지난한 일이었을 터였다. 인천의 지형을 살펴보면 금세 그 같은 사정을 알게 된다. 낙동강이나 금강 같은 규모의 강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자고로 인천의 음용수 공급처는 우물일 수밖에 없었다. 제물포 개항 전후에는 용동 큰우물을 비롯해 웃터골, 화수동, 배다리, 창영동, 송림동 등지에 우물들이 있어 그런대로 식수 확보를 하였으나 조계지의 인구가 늘어나고 상업이 번성해지자 식수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항만 시설의 구축, 경인 철도의 부설 등 근대 교통, 운송 기반의 확충과 우편, 전화 등 새로운 통신 수단의 보급과 맞물리면서 인천은 인적, 물적 집산지로서 급속한 성장을 거듭했고, 그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식수와 산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사회의 중요 문제로 대두되었다.

1889년에 이르러서는 대형 우물 3개소를 파 하루 500톤의 용수를 선박에 공급하게 되었고, 물장수가 늘어나자 물장수조합까지 등장했었다. 그러나 1900년에 1만6천445명이던 것이 1905년에는 2만6천330명으로 급격히 인구가 늘어 보다 근본적인 급수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수도 설치를 처음 논의한 것은 1905년 인천 거주 일본인들이었다. 그들은 개항장 제물포에서 약 6Km 떨어진 문학산 계곡



개화기 인천 조계지에 설치된 우물가 정경

에 수원지를 만들어 약 1만4천여 명에게 1일 38리터를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전적으로 일본인을 위한 것이었는데, 규모가 적고 실용성이 떨어져 무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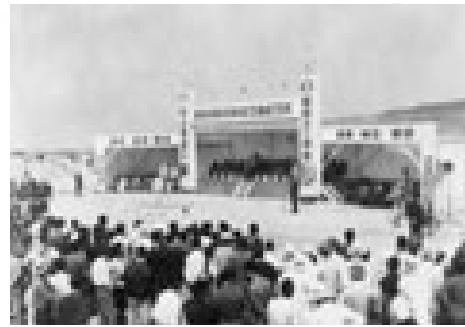
탁지부 수도국에서 측량에 착수

그해 8월 재인 일본인거류민단은 일본 내무성 기사를 초빙해 한강 연안 노량진을 수원지로 하여 인천에 물을 급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인 수도 건설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듬해인 1906년 2월 구한국 정부는 탁지부에 수도국을 설치하고, 인천의 일본인들이 제안한 경인 수도 건설 계획을 받아들일 것을 결정하고 측량과 설계에 들어가 그해 11월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08년 10월 송현 배수지를 준공한 데 이어 기타 잔여 공사를 하고 1910년 4월 인천의 상수도를 운영, 관리하기 위한 인천수도사무소를 설치했다. 그 해 9월, 마침내 약 4년 여의 공사 끝에 인천에서 노량진에 이르는 인천 상수도 건설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였다.

1908년 10월 송현 배수지 준공

정부는 한 달 여간의 시험 통수 기간을 거쳐 10월 30일 역사적인 경인간 통수식을 가졌으며 12월 1일부터는 인천부 각 동네로



부평정수장 기공식 광경



60년대의 물 고통. 아낙네들이 길거리에서 급수차를 기다리고 있다.



김포 수원지 통수식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해 상수도 시대를 열었다.

당시 인천 수도의 수원지는 노량진 철교 상류 부근으로 취수탑을 설치하고, 수위에 따라 한강 물을 끌어올리도록 한 것인데. 여기서 정수를 끝낸 물은 직경 20인치가 되는 주철관을 통해 30.8Km가 떨어진 송현 배수지로 보내졌다.

송현 배수지는 인천부 동북쪽 송림산 정상에 있었다. 산 이름은 송림이었지만, 사람들은 이 산을 ‘수도국산(水道局山)’이라 불렀다. 수돗물은 이곳을 출발해 그 아래쪽 경인철도를 건너 각국 거류지, 우편국 앞길 등 개항장 부근 시가에 급수되었다.

인천 상수도는 비록 부산, 서울, 평양, 목포에 이어 국내 5번째였지만, 이에 투입된 공사비나 공사 기간 등은 국내 최대의 규모였다. 건설은 탁지부 수도국이 주관했으나 1908년 관제 개편으로 내부 토목국으로 이관되었고, 1910년 국권을 상실하자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토목과가 관리하였다.

그러나 그로써 인천의 물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계속되는 인구의 증가와 각종 군수공장이 인천, 부평 등지에 들어서자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은 더욱 어려워졌다. 사정이 그쯤에 이르자 가장 고통을 받는 이들은 역시 일반 부민들이었다. 부민들은 연중 물 대란을 혹독하게 겪으면서 고단한 일제 강점기를 보내야 했다.

광복 후에도 인천의 물 사정은 나아진 것이 거의 없었다. 1946년 8월에는 급수를 받지 못한 열차의 운행이 중단 또는 지연되는 사태가 빈발하였고, 12월에는 수도관 파열, 전압 강하 등으로 일주일씩이나 혹한과 물 부족에 시달리기도 했다.

1948년 5월 14일에는 북한이 돌연 남한으로 보내던 전력을 끊어 수돗물 공급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이 해에 수돗물이 없던 날은 74일이었고, 물이 공급된다 해도 격일제, 3일제, 주일

제 등이 계속되는 형편이었다. 당시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원동, 금곡동, 송현동, 내동, 중앙동, 송월동 등에 공동 우물 10곳을 팠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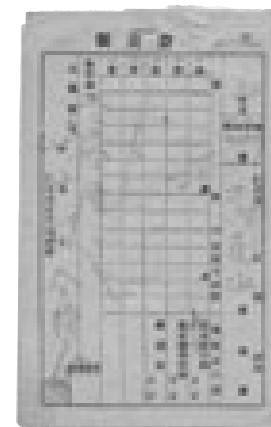
인천의 물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 시작한 것은 1956년부터 1965년까지 1, 2차에 걸친 인천상수도 확장 5개년 계획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1970년 말까지 사상 유례가 없는 인구의 증가와 공단 조성, 생활 향상에 따른 물 수요의 급증 등으로 물은 여전히 시정의 최대 당면 과제가 되었다.

그런 정황 속에 1989년, 인천 상수도는 대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해에 발족한 인천시상수도본부는 순수한 상수도 사업만을 전담하는 사업본부 체제를 갖추어서서 공기기업으로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확립하였던 것이다. 그 후 상수도 사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2007년 현재 급수 인구는 169만여 명에서 264만여 명으로, 급수율은 96.5%에서 97.6%로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놓았던 것이다.

물론 원수 가격이 타지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것 등은 개선해야 할 숙제이나 물의 질 향상과 24시간 공급 체계 등은 팔목상대할 만한 진척인 것이다. 특히 2006년 탄생한 ‘미추홀 참물’은 인

천 수돗물의 명품 시대를 알리는 서곡으로서 향후 예상되는 일반 음용수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까지 노리고 있는 야심작이었다.

사실, 사시사철 물 걱정 안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다. 공동 수도에서 밤을 지새우며 물통을 채우던 어머니들, 마른 우물 바닥에서 흙탕물을 길어 올리던 누이들, 펌프 질에 허리가 휘었던 남정네 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새삼 청량한 수돗물의 고마움을 절감하게 된다. ‘짠물’에서 ‘미추홀 참물’까지 온 물의 역사는 곧 인천의 역사였다. 🍃



1953년도 발행 인천시 수돗물 영수증



인천대교 준공 D-365 장대한 위용 드러내

국내 최장, 세계 5위 규모인 인천대교의 준공을 1년 앞둔 지난 10월 23일, 공사 현장에서 ‘인천대교 준공 D-365’ 기념주행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안상수 시장과 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인천대교 진입로부터 서측 주탑까지 약 6km 구간을 차량으로 달리며, 주탑 높이 238.5m로 63빌딩 높이에 달하는 인천대교의 장대한 위용을 공개했다.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영종도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를 해상으로 연결하는



인천대교는, 접속도로 8.93km를 뺀 바다 위 교량 구간만 12.34km에 왕복 6차선 규모로 현재 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또 교각 없이 주탑과 상판을 케이블로 연결하는 사장교 방식으로 건설됐으며 주탑 사이의 거리가 800m로 세계 5위 규모다.

인천대교는 우리시와 영국계 다국적 기업인 에이멕(AMEC), 재무 투자자 등이 함께 설립한 인천대교(주)가 1조5천91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설 중이며, 준공 후 30년간 운영을 맡게 된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114

남북교류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우리시 대표단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에 초청으로 지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평양을 방문했다. 이번 방북은 우리시와 우리겨레 하나되기 인천운동본부의 협력사업인 평양 제1인민병원 내 치과병원 준공식에 참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창구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유관단체, 시민단체 인사 등 총 30여 명이 방북했다. 우리시는 지난 4월 3억원 상당의 치과병원현대화 사업비를 지원, 북한의 의료서비스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시 대표단은 이와 함께 이번 방북 기간 동안 평양시의 중심지인 창광거리와 유적지를 방문, 도심재생사업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3843

인천·동인천역 주변 개발

우리시의 대표적 구도심인 인천역과 동인천역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시는 도시개발과 관련 11월까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키로 했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지구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재정비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문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시는 인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의 제안서를 평가, 최고 득점자를 선정해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시는 또 내년 말까지 사업시행자를 유치하고 2010년 하반기에 착공해 2013년까지 개발사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문의 | 시 도시재생과 ☎ 440-3992

금융중심지 유치에 박차

우리시가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중심지’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9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에 금융중심지 유치 TF팀을 구성했으며, 11월 중으로 한국국제경영학회를 열고 금융포럼을 잇따라 개최할 계획이다. 시는 포럼을 통해 금융중심지 후보지로 자체 선정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내 111만3천㎡ 부지에 대한 지정 신청과 개발방안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14일까지 지자체로부터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을 접수하고, 국제경쟁력·인프라·지자체의 지원 등을 평가해 올해 안에 금융중심지를 선정하게 된다.

문의 | 시 경제정책과 ☎ 440-2791

교동도 연륙교 첫 삽



교동연륙교의 기공식이 지난 9월 25일 있었다. 교동연륙교는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와 교동면 봉소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44km의 왕복 2차선으로, 사업비 904억원을 들여 오는 2012년 말까지 완공해 개통할 예정이다. 교동연륙교가 완공되면 두 섬을 오가며 여객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높아지고,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교동연륙교를 강화조력발전소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조력발전소 건설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기로 했다.

문의 | 시 항만공항지원과 ☎ 440-4822

월미관광특구 순환버스 운행

월미관광특구를 순환하는 시내버스가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다. 월미관광특구 노선에는 대형 CNG 버스 3대가 투입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30~40분간격으로 하루 30회 정도를 운행하게 된다. 주요 정류장은 연안부두-여객터미널-연안어시장-라이프아파트-남향-인하대병원-구)터미널-신흥사거리-답동사거리-인천우체국-중구청-인천역-월미도다. 이 노선은 월미관광특구를 찾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시에서 작년 7월부터 4회에 걸쳐 노선공모를 실시했으나 유찰됐다. 이에 인천형 버스준공영제의 시범사업으로 인천교통공사가 운영을 맡게 됐다.

문의 | 인천교통공사 ☎ 430-7238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5주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5주년을 맞았다.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5주년 기념식이 지난 10월 15일 이현석 청장을 비롯해 경제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있었다. 이날 이현석 청장과 직원들은 지난 5년간 경제자유구역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고 목표를 실현키 위한 결의를 다짐했다. 경제청이 향후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는 ▲2020년까지 364억달러 투자유치 달성 위한 투자유인책 마련 ▲지식기반산업

정책과 첨단 의료클러스터 조성 ▲전시·관광·문화 앵커시설 유치로 차세대 전략사업 육성 ▲첨단 u-City 인프라 구축과 친환경 교통시스템 도입으로 완벽한 도시 인프라 조성 ▲시민과 소통하고 의회·중앙부처와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등이다. 경제청은 앞으로 지방의회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이해와 협조의 폭을 넓히도록 주력 할 방침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114

국정감사, AG 경기장 신설 등 논의



지난 10월 16일 시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의 인천시 국정감사가 있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현황,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신설, 타이거 항공 설립 타당성 등 시의 주요 현안 사업이 논의됐다. 특히 2014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신설에 대해서 국회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안 시장은 “정부가 600억원 정도면 문학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개조한다지만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 인천의 계산으로는 1천 630억원이 필요하다. 인천의 논리적 근거가 더 탄탄하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에 한나라당 조진형 행정안전위원회장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기장 신설의 필요성을 직접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문의 | 시 정책기획관실 ☎ 440-2132

인천FC와 자원봉사 협약 체결



우리는 10월 4일 문학경기장에서 인천연고 프로축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FC와 자원봉사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향후 시민들이 경기장 내에서 홍보, 기초질서 지키기, 환경 정화 등에 참여하면 자원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자원봉사증을 소지하면 홈경기 무료입장 및 감면, 팬 사인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 초청 등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협약식과 함께 인천유나이티드FC 소속 송유걸, 방승환 선수가 자원봉사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문의 | 인천유나이티드FC ☎ 423-1500

인천환경기술전 개최



제6회 인천환경기술전이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 우리시 주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수질, 대기, 재활용, 하천, 친환경 분야의 신기술을 보유한 126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해 환경기술관, 실용환경관, 환경정책, 실천관 등을 운영했다. 환경기술관에서는 국내외 환경

신기술 인증제도를 소개하고, 실용환경관에서는 송도국제도시의 친환경개발과 유비쿼터스환경,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제품, 지역 특산품과 유기농산물 등을 선보였다. 또 부대행사로 하천환경 학술 심포지엄, 하천거버넌스 포럼, 물 전문가 토론회, 인천 환경체험전, 환경신기술 발표회, 한·중 환경교류회 등이 펼쳐졌다.

문의 | 시 환경정책과 ☎ 440-3511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17개 신설



우리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해 새로 지을 경기장 17개의 위치와 규모가 공개됐다. 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는 데 필요한 경기장 40개 가운데 17개 경기장의 신설을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서구 연희동에는 육상경기장과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등이 들어서는 종합경기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또 계양구 서운동에는 실내체육관과 양궁장을, 남동구 수산동에는 럭비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을, 부평구 십정동에는 테니스·스쿼시 경기장과 수영훈련장을 건립한다. 이어 강화군 강화읍에는 태권도·우수 경기장과 사이클·BMX 경기장을 세우고, 연수구 선학동에는 탁구장과 볼링장, 하키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문의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 440-4142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보고회



‘도시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도로굴착온라인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완료보고회’와 개발된 시스템의 전시회가 지난 10월 6일 시청에서 개최됐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19억2천만원을 들여 지난해 7월부터 올 10월까지 15개월간 추진했다. 우리는 이번 사업으로 도시정보시스템(GIS)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정보시스템과 지리정보사업을 통해 축적된 관리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도로굴착온라인시스템은 시민의 불편과 예산낭비를 최소화시켜 최적의 고로관리 서비스를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의 | 정보화담당관실 ☎ 440-2322

송도에 미국 5개 대학 분교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미국의 유명 대학 5개의 분교와 연구소가 들어설 전망이다. 지난 10월 23일 열린 ‘인하 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 추진경과 보고대회’에서 인하대의 송도 새 캠퍼스에 미국의 일리노이대, 미시간대, 남가주대, 휴스턴대, 유타대 등 5개 대학의 대학원 분교와 연구소를 입주시키는 계획이 밝혀졌다. 인하대는 유타대와 11월 중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대학은 이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합의각서 체결을 추진 중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114

동북아 트레이드타워 다국적기업 첫 유치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에 건립 중인 동북아 트레이드타워에 다국적기업인 오티스 엘리베이터 코리아가 입주한다. 세계 100대 다국적기업 중에서 처음으로 송도국제도시에 진출하는 오티스 엘리베이터 코리아는, 동북아 트레이드타워의 지상 65층 가운데 한 층 전체인 1천900m²를 사용기로 했다. 오는 2010년에 완공하는 동북아 트레이드타워는 총 연면적 14만8천m²에 최상급 사무공간과 호텔, 상가, 주거지 등이 조성된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114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 창립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6개가 경제, 문화,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기로 했다. 우리시와 부산진해, 광양만권,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황해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들은 지난 10월 24일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에서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 창립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령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각종 사업에 대한 투자 협력을 강화하는 등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해 시행기로 했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114

세계환경포럼 개최

세계환경포럼이 내년 인천세계도시축전 기간 동안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우리시와 도시축전조직위, 조선일보는 지난 10월 22일 세계환경포럼을 개최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조직위는 향후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주관운영대행사(PCO)를 선정할 계획이다. 세계환경포럼은 내년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며, 세계환경예술작품 전시와 아태환경정책포럼, 에너지체험전 등을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시 환경정책과 ☎ 440-3512

경인운하 대토론회 개최



지난 9월 29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경인운하의 역할과 운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인천시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진웅 한국수자원공사 굴포천사업단장의 사업경과보고에 이어 최지용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환경 측면에서의 경인운하’와 정태원 인천발전연구원 박사의 ‘경인운하의 역할과 전망’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또 토론을 통해 경인운하 개발을 추진키 위한 전담 추진협의체 구성문제,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연계개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의 | (사)인천언론인클럽 ☎ 468-9235

경제자유구역에 도시경관 본격 추진

경제자유구역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경관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송도 5·7공구는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경관사업지역으로, 사업비 19억5천만원을 들여 경관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또 151층 인천타워 등 랜드마크시티로 조성되는 6·8공구는 도시경관심의협의회 및 포트만콘소시업 등과 협의한 후 도시디자인업체를 선정, 도시경관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청라지구 일대 17.77km² 부지는 레저·스포츠 도시에 맞도록, 영종하늘도시 2.7km²부지는 항공과 물류도시 및 국제공항지원 단지에 어울리도록 경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114

교량 경관 개선사업 추진

우리가 내년에 총 9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4개 교량에 대한 경관 개선사업을 벌인다. 대상 교량은 남구 능해고가교, 관선고가교와 연수구 남동고가교, 105호고가교 등이다. 시는 이들 교량에 미적 기능을 갖춘 외장재와 조형물, 야간 조명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열리는 내년 8월 이전에 공사를 끝낼 방침이다. 시는 또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2014년까지 400억원을 들여 송도2교, 천대고가교, 우회고가교, 방축고가교, 장수고가교, 간석고가교, 석남제2고가교, 백석고가교, 도두리2교, 부평I.C고가교, 서부1교 등 11개 교량에 대해서도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문의 | 시 도시경관과 ☎ 440-4483

웰컴 투 인천

김창준 前 하원의원, 국제고문 위촉



지난 10월 14일 우리시를 방문한 김창준 전(前) 미 연방 하원의원이 우리시 국제고문으로 위촉됐다. 우리시는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와 국제행사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김 전 하원의원을 국제고문으로 위촉,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김 전 하원의원은 1990년 캘리포니아주 다리아몬드바 시의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1991년 다리아몬드바의 시장이 됐다. 이어 1992년 미국 연방 하원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당선됐으며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최초로 미국 연방 의회에 진출했다.

재외동포언론인 방문

전 세계 재외동포 언론인들이 지난 10월 10일 송도국제도시 개발현장을 둘러보고,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조직위원회를 방문했다. 재외동포언론인협회 연수대회 차 방문 중인 재외동포 언론인들은, 홍보관에서 상영하는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영상물을 관람하고 행사 내용 등에 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홍종일 정무부시장은 “이민역사의 출발점이었던 인천이, 지금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외동포들은 “인천은 최고의 국제공항과 대교 등으로 동포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다. 동포

사회가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에 적극적 관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방문한 재외동포 언론인들은 모두 도시축전 해외 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

러 사하공화국 부통령 방문

러시아 사하공화국의 미하일로바 예브게니아 이사예브나 부통령과 시도르바 베라이바노브나 대외 관계부 차관 일행이 우리시를 방문,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참가 규모와 일정 등을 협의했다. 사하공화국은 지난 9월 초 우리시와 도시축전에 참가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날 미하일로바 부통령은 “인천대교와 인천국제공항 등을 비롯한 인천의 발전상에 크게 감명 받았다.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에 참가해 사하공화국을 널리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 시장은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을 통해 우리나라와 사하공화국 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지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필리핀 마닐라시와 자매결연



우리시와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시가 지난 10월 7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안상수 시장과 알프레도 림 마닐라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자매도시 결연식을 갖고, 앞

으로 도시개발과 관광, 항공, 어학연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와 마닐라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마닐라시에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가 다수 위치해 있는 만큼, 이번 결연으로 우리시의 국제기구 유치가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인천과 ‘W’자 모양으로 연결된 아시아 중심도시들과의 교류를 강화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Win-Tie 아시아 교류전략’을 추진하며, 중국·베트남·인도 등 아시아 주요 도시와의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호주 브리즈번시 부시장 방문



호주 브리즈번시의 아만다 쿠퍼 부시장이 지난 10월 7일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원회를 방문, 도시축전 참가를 적극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날 APCS(아태도시정상회의) 베리 헨콕 감독관과 함께 조직위를 찾은 아만다 쿠퍼 부시장은 오갑원 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브리즈번시는 호주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이자 교육과 레저,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세계 유수 도시와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에 참가, 도시를 홍보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52

군·구 소식

중구 중국어마을 선포

중구는 지난 10월 11일 자유공원에서 중국어마을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운영되는 중국어마을은 중국인 대학생과 함께 차이나타운거리를 돌며 중국어를 배우고, 차이나타운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국어마을은 앞으로 매월 2, 4번째 토요일에 운영된다.

문의 | 중구청 ☎ 760-7114

동구 조상 땅 찾아주기 진행

동구는 지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조상의 명의로 된 토지를 구민들에게 찾아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지금까지 311필지 23만2천186.4㎡를 색출해 신청인에게 토지소유 사실을 제공했다. 이는 동구 관할인 작약도의 3.2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

문의 | 동구청 ☎ 761-0151

남구 의료서비스 도우미 위촉

남구는 주요 의료기관 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남구 의료서비스 도우미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도우미 위촉 후에는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긴급지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발한 의견교류의 장을 열었다.

문의 | 남구청 ☎ 887-1011

연수구 환경정비의 날 운영

연수구는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지난 10월 7일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및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과 환경 취약지 정비, 학교 주변 정화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문의 | 연수구청 ☎ 817-1011

남동구 장애아 안심놀이터 조성

남동구가 우리시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관내 어린이 공원에 장애인을 위한 친환경 놀이공간을 조성한다. 구는 11월 말까지 총 3억원을 들여 창대 어린이공원 내에 장애인을 위한 친환경 놀이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구는 내년에도 관내 어린이 공원 7개소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남동구청 ☎ 466-3811

부평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부평구가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올해 1단계 사업으로 개흥초등학교 외 4개 학교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2단계 사업으로 나머지 5개 학교의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의 | 부평구청 ☎ 527-5911

계양구 다남공원 게이트볼장 준공

계양구는 지난 10월 13일 다남체육공원에서 게이트볼장 준공식을 가졌다. 구는 648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만7천592㎡ 면적에 게이트볼장, 스탠드, 체력단련시설 등의 시설을 갖춘 게이트볼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의 | 계양구청 ☎ 551-5701

서구 다기능 버스 승강장 조성

다기능 버스 승강장이 서구청사 인근에 지난 10월 5일 시범적으로 문을 열었다. 승강장은 버스의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전자시스템과 자동문, 냉난방 시설 등을 갖췄으며, 휴대전화 급속충전기와 공공전화기, 책장, 음료수자판기 등이 설치돼 있다.

문의 | 서구청 ☎ 562-5301

강화군 간판아름다운거리 시범운영

강화군은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앞두고 지역 내 48번 국도변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거리조성 사업은 내년 2월까지 강화대교~강화군청 3km, 8월까지 강화군청~강화여고 0.8km 구간에서 이뤄진다.

문의 | 강화군청 ☎ 930-3114

옹진군 백령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옹진군이 백령도 일대에 대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나섰다. 옹진군은 백령도에 있는 두무진을 비롯해 사곶해변과 콩돌해안 등을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문의 | 옹진군청 ☎ 899-2114

교육청소식

중국 천진시와 교육발전 방안 논의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중국 천진교육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국제교육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국제교육포럼은 인천·천진시 자매결연 15주년 기념으로 체결된 인천시 교육청과 천진시교육위원회간 상호교류 협약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포럼을 통해 ‘중등교육 혁신과 학교의 발전’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또 천진시 교육기관을 방문, 교육전반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차후 실시할 인천시 교육청과 천진교육위원회 자매결연학교간 상호방문에 대해 협의했다.

문의 | 인천시교육청 홍보팀 ☎ 420-8225

시민과 함께 '세계 10대 도시' 로~

지난 10월 15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제44회 시민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시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인천의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으며, 시는 시민상과 문화상 등을 시상해 지역발전에 힘써 온 시민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인천시민의 다짐'을 낭독하고 '인천시민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이날 기념식에는 시민상, 문화상,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등 수상자 35명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우리시가 발표한 제30회 시민상 수상자는 사회공익상 부문에서 새마을 분야에 맹진호(59) 새마을 인천시협의 회장, 봉사 분야에 김정부(65) 인천시 자원봉사센터회원과 노정희(56) 남동구 새마을부녀회장, 공익 분야에 공복자(50)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회원 등이다. 또 국제교류 분야는 양의식(65) 인천국제미술교류회장, 기타 특별 분야는 유지숙(52) 바르게살기 계양구 여성협의회회장, 효행상은 노인순(58) 씨가 수상했다. 이어 산업발전상 부문에서는 상공업 분야에 한광덕(62) 대한사료공업(주) 전무이사, 농수산 분야에는 이만식(49) 씨가 상을 받았다.



>>인천시 문화상

우리시 향토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제26회 인천시 문화상의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문학 노기태(73) 한국문인협회 인천시지회 이사, 미술 이정웅(73) 한국사진작가협회 전 인천시지회장, 공연예술 이순희(52) 국악협회 인천지회장, 언론 원현린(52) 인천신문 주필 등이다. 올해 체육 부문 수상자는 해당자가 없다.

2014 AG 성공개최를 위한 한목소리

지난 10월 2일 국회 대회의실, 이근학 부의장과 김용근 문교사회 위원장을 비롯한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의 신설을 승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전달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0월 1일 제1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신설에 관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약속한 적정 규모와 시스템을 갖춘 주경기장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며 "정부가 미온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주경기장의 신설을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인천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향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등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새 경기장을 지어야 하는 이유

우리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39개 경기장 가운데 21개를 새로 짓고, 18개는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및 선수촌 건설 기본계획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가 문학경기장을 증축해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기장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결정이 유보된 상태다. 이에 시는 고정석을 5만석에서 3만석으로 줄이고, 가변석을 4만석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주경기장을 조성하고, 대회가 끝나면 가변석을 철거해 앞으로 조성할 체육공원 10곳에 스탠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처럼 가변석을 늘리면 건설비용이 애초에 세웠던 3천532억 원원에서 1천194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환경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서구의 연희공원 주변에 주경기장을 세워 녹지공간이 풍부한 경기장을 조성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14년을 향해 한마음으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의 신설을 촉구하는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지역사회도 뜻을 함께 하고 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신설에 관한 촉구 건의안'을 결의한 지난 10월 1일, 인하대 체육동문회와 체육부 감독·선수단은 성명서를

통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2013년까지 주경기장을 신설하고 선수촌 미디어촌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 주경기장의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결의대회를 열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인천시민들의 염원을 담았다. 이어 지난 10월 6일에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범시민협의회'가 출범했다. 안상수 시장을 회장으로 시의회와 인천지역의 인사 등 80여 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아시아경기대회를 홍보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데 앞장서게 된다. 이들은 매월 기초질서 생활화 및 환경정비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국제대회 관계자와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어 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News

시의회 소식

한·중 열차페리시스템 구축 토론회

인천시의회 '인천항 기능 재배치 및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한·중 열차페리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인천항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항만 특위는 이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유재균 박사를 초청, 인천항 실정에 맞는 열차페리 구축 시스템에 대해 청취했다. 열차페리시스템은 해상운송의 저렴성과 철도운송의 대량성 및 신속성을 접목시킨 복합운송방식의 물류시스템이다.

전국체전 개최지 여수서, 시 홍보



고진섭 의장을 비롯한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0월 10일과 11일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여수시를 방문, 대대적인 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인천시의회 홍보단은 방문기간 동안 여수시 전역을 돌면서 2009 인천세계 도시축전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적극 홍보했다. 특히 홍보기간 중 울산시의회 의원들을 만나 우리시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에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도시축전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제169회 임시회 진행



인천시의회 제169회 임시회가 지난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열렸다. 시의회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고 22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원회를 벌인 뒤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각 상임위는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함께 실·국, 기관별 주요 예산 사업 추진상황 보고받았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룬 주요안건은 '기후변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등 의원들이 발의한 7건과 '2009 아·태 도시정상회의 개최 계획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16건 등 총 23건이다.

네시아를 방문,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시의 주요사업 및 행사를 홍보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앞장

최근 건강과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인천시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시가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설치해 5년마다 인천지역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또 시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유통업자, 인증기관 등에 대해 시설 설치자금과 농자재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재래시장 점용료 감면율 80%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재래시장 국·공유지 점용료 감면율이 80%로 확대된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0월 9일 '인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도로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감면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의 | 인천시의회 홍보팀 ☎ 440-6052

고진섭 의장 체제로 원을 새롭게 구성한 인천시의회가 의정활동에 들어간 지 어느덧 두어 달이 지났다. 제5대 2기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위원장과 산업위원회 한도섭 위원장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인천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계획을 들어본다.

“고품격 문화도시 만들기에 앞장 서겠습니다”

신임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시민복지를 향상시키며,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떤 분야에 역점을 두고 문교사회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것 인가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 치르기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격조 높은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을 세우고 특히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고급 의료복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는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 그리고 인천교육 발전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합니다. 시의회 또한 시민 여러분의 뜻을 모으는데 중점을 두고 열린 공간에서 시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

“도시 발전과 시민 행복 이루도록 힘쓰겠습니다”

신임 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산업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므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봉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시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업위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요

산업위원회가 담당하는 시 실·국, 청, 본부 가운데 특히 경제자유구역청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발전과 직결된 만큼, 주요 정책과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또 반기별로 토론회를 개최해 집행부에 제안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인천의 미래 발전을 향한 포부가 있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선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도시재생 및 개발 사업, 각종 국제대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와 지원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하는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위원장



산업위원회
한도섭 위원장



‘시민의 발’ 가볍게... 대중교통비 적극 지원

우리는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환승할인과 여객선운임 및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교통지원정책을 펼치고자 버스 및 지하철 환승할인에 200억원, 택시에 25억원, 여객선운임에 50억원, 고속도로 통행료에 40억원 등 연간 총 315여 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우리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교통지원책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도서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중교통 환승할인 지원

우리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도서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대중교통 환승할인사업과 여객선운임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먼저 지난 2001년 시내버스카드 할인제를 시작으로, 2003년 12월부터 시내버스 간 환승 시 교통비를 무료 혹은 할인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카드 사용률이 15%에서 90%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7년부터 간선, 지선, 좌석버스 간 환승 시 차액요금을 적용하고, 좌석버스, 인천시내버스, 인천지하철간 환승을 무료 또는 50% 할인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환승할인제는 작년 기준 시민들의 교통카드 이용률을 91%까지 높이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 대중교통 환승체계도

- 환승기준
 - 시내버스(간·지선, 103·112번, 강화군 내, 영종·용유 내, 영흥 내)는 승차 후 1시간 이내
 - 광역·좌석버스, 인천지하철은 하차 후 30분 이내 (하차 시에도 단말기에 카드 접촉)
- 지원방법 : 환승건수 정산해 노선별로 운수업체에 환승액 지원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지원

우리는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 10월 1일부터 공항고속도로 인천구간인 북인천영업소를 통행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통행료 지원 대상 차량은 주민등록상 한 가구당 두 대 이내로 한 대당 세 대원 네 명까지 감면카드에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 지역 : 중구(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 옹진군(북도면)
- 차량 :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자가 차량
- 감면카드 발급등록 : 1가구 2대 이내(1대당 4인까지 등록 가능)
- 사용횟수 : 1대당 1일 왕복 1회(편도 2회 : 횡수 초과 시 정상 요금 납부)
- 지원방법 : 공항고속도로 무료 이용객의 감면카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정산 후 시에서 통행료 지원



여객선운임 50% 할인사업 지원

우리는 올 9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민이 도서지역 방문 시 여객선 운임비를 50% 할인받으려면, 주민등록증(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7일 이내 발급)을 연안 여객터미널 매표창구에 제시하면 된다. 내년 1월부터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인천시민 인증을 좀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의 확대 시행이, 도서지역 관광산업의 발전과 우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상 : 인천시민
- 항로 : 옹진군 전도서, 강화군 외포~주문(주문, 아차, 불음)
- 구비서류 : 인천시민 여객선운임 할인신청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7일 이내 발급)
- 지원방법 : 인천시민 여객선 이용객 정산해 시에서 40%, 선사에서 10% 등 총 50% 지원



택시요금 할인사업 지원

우리는 지난 2002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택시교통카드 단말기를 도입했으며, 2005년 1월부터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 시 요금을 100원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그리고 시민들과 운전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그해 11월부터 건당 200원씩 할인율을 높이고 운전자에게 장려금을 건당 100원씩 새로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택시교통카드 할인책은 우리시만의 대표적인 선진교통정책으로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더욱 증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 대상 :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는 승객(인천택시에 한함)
- 내용 : 택시요금을 교통카드로 사용하면 요금 200원 할인, 택시기사에게도 운전자 장려금 100원 지원
- 지원방법 : 교통카드 결제건수 정산해 시에서 운수업체 및 기사에게 요금 할인액 및 장려금 지원

후끈, 화끈... 미세스 홍당무?



어느덧 옷깃을 스치는 바람이 알싸하니 가을인가 싶는데 벌써 세상은 겨울 준비로 바쁘다. 언제 나뭇가지에 잎이 무성했나 싶더니 계절은 그렇게 스스로 오고 스스로 가고 있다. 사람의 삶 또한 그렇다. 한창 푸르른 청춘인가 싶으면 시간이 흘러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인간의 생로병사는 계절이 흐르듯 자연스런 일인 듯하다.

여성의 일생에서 건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간을 꼽는다면 40에서 55세까지 이르는 갱년기라는 기간일 것이다. 갱년기에 대한 WHO의 정의는 난소의 기능이 상실되어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없어지고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시기이며, 성년기에서 노년기로 들어가는 과도기를 뜻한다.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으로는 갱년기 초기에는 혈관확장으로 인한 안면홍조와 수면장애, 우울증이 있으며, 중기에는 관절통과 배뇨장애, 말기에는 피부의 변화, 골다공증, 심장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평소의 생활 관리와 정서적 안정상태에 따라 개인차를 갖는다.

여성의 갱년기는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감소에 원인을 둔다.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는 장소는 난포막, 지방세포, 부신피질세 군데가 있다. 폐경이 되면서 난포막의 에스트로겐 합성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나머지 지방세포와 부신피질에서 에스트로겐을 충당하게 되는데, 지방세포는 비만도와 관계되어 성인병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반면, 부신에서 합성되는 에스트로겐이 많은 사람은 갱년기를 가볍게 넘길 수 있다.

한의학에서 이 같은 호르몬의 작용을 간주목과 신장정이라 한다. 한의학에서 '장군지관모려출언'이라고 하는 간은 인체의

자극에 대한 반응 강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여 각종 물질의 합성이나 혈류의 분포를 조절한다. 신(腎)은 정(靜)이라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간과 신은 호르몬의 생성과 조절이라는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하는데, 간의 조절기능이 적절하면 혈액의 흐름을 안정되게 유지하여 안면홍조나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신 기능이 강한 사람은 부신에서의 에스트로겐 합성이 활발하여 폐경을 맞아 난포의 에스트로겐 합성능력이 떨어져도 갱년기를 무난히 보낼 수 있지만 신기능이 약한 사람은 갱년기증후군을 심하게 겪게 된다.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양방치료는 호르몬 주사를 쓴다. 한방에서는 간 기능을 안정시키는 청간탕, 온담탕류로 안면홍조, 우울증 수면장애 등을 처방하고, 고지혈증이나 골다공증 경우에는 신 기능을 보하는 육미지황환이나 고진음자 등을 처방한다. 치료기간은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증상이 없어진 뒤에도 8주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과량의 콜레스테롤로 인한 고지혈증과 골다공증을 방지하여 혈액을 맑게 하는 해독과정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정서적인 이완요법, 스트레스를 피하고, 등산과 같은 운동으로 혈류를 안정시킬 수 있다. 식품으로는 석류나 인진으로 달인 차를 상복하면 혈액이 맑아져 갱년기증후군에 도움이 된다. 🍷

글 · 김중순 부평한방병원 원장



누구 발이 더 클까?

즐거운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발장난이 심하다. 무뚝뚝하고 사나운 것 같으면서도 생각이 깊은 딸은,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해 늘 자신만만하다. 부녀의 얼굴 생김새며 발가락 모양까지 똑같다. 피는 역시 못 속이나보다.

김익경 | 남동구 구월4동

축
장
원



앓 깜짝이야

딸아이가 머리를 해달라고 조르기에 처음으로 미장원에 가서 예쁘게 공주님처럼 꾸며주었다. 아이는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매우 기뻐했다. 그 예쁜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 셔터를 누르는 순간 놀래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조영실 | 남동구 만수2동



봉어빵 부자

어쩔 이리도 닮았을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 닮은 구석이 없다. 그래서 조금은 서운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내 남자들이다. 사랑해, 여보야~ 그리고 기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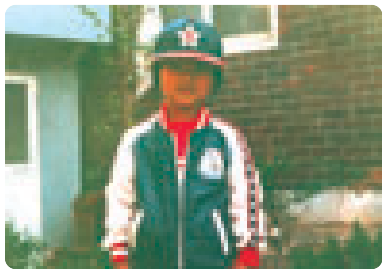
이효신 | 남동구 남촌동



배추야, 밤새 안녕?

아침 산책길에 찾아 낸 작은 텃밭.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배추를 보며, 이제 막 말 배우기 시작한 딸아이가 “배추~, 배추~”한다. 가을 추수하는 아낙네의 뒷태가 저와 다르라. 영락없는 리를 농부다. “배추들아 안녕~ 내일 또 만나자~”

오진희 | 연수구 연수3동



인천사랑 야구사랑

나는 누가 뭐래도 프로야구 원년 슈퍼스타즈 초대 회원이다. 6살 때 아버지께서 어린이회원에 가입하고 모자와 점퍼를 가져오셔서 마당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인천에 프로야구 연고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롭다.

이병욱 | 연수구 옥련동



오랜만의 놀이

일생동안 가장 고민이 많은 인생의 황금기를 맞은 대학 초년생 딸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수다쟁이 우리 늦둥이가 오랜만에 놀고(?) 있네요. 어릴 땐 사진을 많이 찍어줬는데 여전히 엄마눈엔 사랑스러운 아기들입니다.

강영자 | 서구 가좌3동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따로 없으며 계절에 맞는 추억의 사진이나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 사연이 담긴 사진 등이면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100자 이내)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응모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좋은 사진은 장원으로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건설한 명품도시

몬트리올



단풍으로 유명한 메이플 가도 끝자락에 자리한 몬트리올은 퀘벡 주의 경제 중심지이자 활기 넘치는 문화도시다. 17세기 프랑스를 출발해 대서양을 건너온 이민자들이 세워놓은 건축물과 최첨단 빌딩이 어우러진 도심과 크고 작은 광장과 공원은 야외 도서관이자 운동장이고 휴식처로 활용되고 있다. 또 시민들 대다수가 프랑스계이지만 서쪽 지역은 영국계를 비롯해 각국에서 이주해 온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다. 명품도시 몬트리올의 최대 자랑거리는 바로 이 다양성이다.

글 · 사진 이형준 <바다 위의 낭만 크루즈 여행> 저자

개성이 존중받는 도시

해발 234미터에 달하는 몽 루와이얄은 몬트리올의 발상지다. 프랑스 탐험가 카르티에는 1535년 대서양을 건너 퀘벡을 지나 이곳에 도착해 이 자그마한 산을 왕의 산이란 의미를 내포한 몽 루와이얄이라고 지명을 정했다. 도시에서 제일 높은 전망대에 바라본 몬트리올은 참으로 변화무쌍한 풍광을 갖추고 있다. 명품도시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인 넓은 녹지 공간 사이로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빌딩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나지막한 주택가는 대도시라는 사실에 의구심을 갖게 할 정도다. 마치 한 폭의 모던한 풍경화 같다는 착각을 일으킨다. 몽 루와이얄에서 도심을 향해 이동하다보면 다양한 주택과 공원, 학교 등을 만나게 된다. 몬트리올에 자리한 주택들은 획일적인 우리네 아파트와는 달리 하나같이 집주인의 개성을 보여주고 있다. 석조와 목조를 떠나 공동주택까지도 저마다 독특한 개성을 간직하고 있다. 외국 출장이나 여행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현지인의 생활 터를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는 기회는 별로 많지 않다. 따라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겉모습이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몬트리올은 개성이 강하고 고집스러운 프랑스인의 기질을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어떤 건물은 온통 담장이 넝쿨로 덮여 있고, 또 다른 주택은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장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다양성은 주택뿐이 아니다. 몽 루와이얄과 도심 사이에 자리한 대학과 공원, 광장도 비슷하다. 프랑스계를 대표하는 맥길 대학과 영국계를 상징하는 몬트리올 대학은 건물도 다르지만 캠퍼스 분

1. 몬트리올에서 가장 높은 언덕인 파크 몽 루와이얄 전망대에서 바라본 몬트리올 전경
2.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시민과 학생들
3. 도심에 자리한 주택은 저마다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4. 도심의 빌딩에 앉아 독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민들
5. 몬트리올 도심에 세워진 커다란 조각상과 고풍스러운 거리 풍경





6. 계단에 앉아 독서삼매경에 푹 빠져 있는 시민



7. 단풍이 물든 드넓은 공원을 걷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몬트리올 시민



8. 도심에 자리한 맥길 대학 교정에서 럭비를 즐기는 여학생들

9. 아름다운 단풍으로 덮여 있는 몬트리올 주택

10. 몬트리올 외곽에 자리한 농가로 하나같이 정겨운 아름다움이 감지된다



9

위기가 뚜렷한 특징을 간직하고 있다. 1821년 모피상으로 거부가 된 맥길이란 상인이 세운 맥길 대학은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다. 맥길 대학은 대학인지 사무실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유분방함이 있는 반면 몬트리올 대학은 한눈에도 대학캠퍼스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돈되어 있다. 그 외관과 분위기가 마치 파리 도심에 자리한 소르본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을 보는 듯하다.

공원과 광장은 몬트리올의 자유분방함과 다양성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몬트리올 도심에는 다름 광장, 자크카르티에 광장, 돌체스터 광장, 캐나다 광장, 라퐁텐 공원, 올림픽 공원 등이 있다. 이러한 공원과 광장을 걷다보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와 점심을 즐기는 시민과 독서에 푹 빠져 있는 시민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자연 속 여유로운 삶

어느 곳을 방문해도 청정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캐나다이지만, 몬트리올처럼 큰 도시가 자연과 어우러져 깨끗하게 조성된 것은 참으로 놀랍다. 시민들이 준비해 온 음식을 먹거나 휴식을 즐기는 광장이나 공원을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철저하게 도시 계획을 세웠기에 가능했다. 도심에 조성된 공원은 크기를 떠나 모든 공간을 개방하고 있다. 잔디가 있는 곳이면 인공조각품을 설치해 놓은 곳 이건 모두 개방해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일찍이 무역과 경제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몬트리올 도심에는 공해를 배출하는 산업현장을 한곳도 찾아볼 수 없다. 과거 몬트리올 경계를 이끌었던 옛 항구지역은 현재 시민들

이 휴식과 여가활동을 하는 공원이 되었다. 강변을 따라 조성된 12.5킬로미터에 달하는 강변 산책로는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인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다.

시민들은 공원이나 광장뿐 아니라, 몬트리올 최고 변화가에 해당하는 노트르담 거리와 생폴 거리에서도 삶의 여유를 즐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 있는 빌딩의 계단이나 건물 의 난간, 창, 발코니 등 도시 곳곳에서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시민들과 만날 수 있다. 이러한 풍경이 연출될 수 있었던 건 도심이 매우 청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삶에 대한 태도와 스타일이다. 의자도 없는 계단이나 난간에 걸터앉아 음식을 먹거나 책을 읽어도 누구 하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스타일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과거에서 내일을 보는 사람들

시민들의 자유분방한 삶만큼이나 도심에 세워진 건물들도 제 각각의 모습을 보여준다. 생폴 거리에는 근사한 갤러리와 레스토랑을 비롯해 첨단 시설을 갖춘 오피스 빌딩, 그리스 신전을 연상시키는 네오클래식 양식의 봉스쿠르 마켓 등 저마다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건물들이 밀집돼 있다. 생폴 거리에 세워진 건물 가운데 인상적인 건물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야채와 과일을 판매하는 시장인 봉스쿠르 마켓이다. 19세기 초에 세워진 봉스쿠르 마켓의 일부는 한때 연방 정부 회의장과 시청, 연주회장으로 사용했으며 몬트리올을 처음 찾은 화물선들의 목표지점으로서의 기능도 했다. 우리 같았으면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나지막한 건물과 주택을 재개발해 사무용빌딩을 신축하거나 거대한 중상복합 아파트를 건축했겠지만, 이 곳에는 약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음 모습 그대로 보존된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캐나다는 국토가 넓어 고층빌딩을 세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캐나다 대도시 도심의 땅값은 우리나라 대도시에 비해 조금도 낮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오래된 건축물을 보존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축물은 기본이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개인 주택이나 하물며 공동주택까지도 보존하고 있다. 몬트리올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노트르담 거리에 자리한 작은 2층짜리 건물인 샤토 람제이 건물을 잘 알 것이다. 18세기 후반에 세워진 이 건물은 과거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운영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했던 건물로, 지금은 도시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생활 용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10

다양성 속에서 피어난 명품도시

우리에게 대한민국 건국 후 참가한 올림픽에서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의 금메달을 안겨준 1976년 제 21회 올림픽의 개최도시로 각인돼 있는 몬트리올. 몬트리올은 1967년 만국박람회를 비롯해 최초로 지구환경을 국제적인 이슈로 공론화시켜 1987년 환경기후변화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한 환경주도형 도시이기도 하다. 캐나다의 뉴욕으로 불리는 몬트리올은 단순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제도시가 아니다. 다양한 문화와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모여 다른 이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명품도시다. 🍁

막上막下

이달의 공연

남궁옥분 인천에 오다



일시 _ 11월 29일(토) 오후 2시
장소 _ 한중문화관
티켓 _ 무료
문의 _ ☎ 760-7860

페어리스



일시 _ 11월 15일(토) 오후 3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티켓 _ 전석 6,000원(학생무료)
문의 _ ☎ 777-9140~8(www.iecs.go.kr)

‘노래가 있어 행복한 사람이기에 내 노래로 인해 단 한사람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면’이라는 소박한 꿈을 갖고 무대에 서는 남궁옥분. 지금도 행복한 마음을 무대에서 쏟아내는 일을 하는 그녀의 행복한 공연이 펼쳐진다. ‘보고픈 내 친구’,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꿈을 먹는 젊은이’, ‘나의 사랑 그대 곁으로’ 등 그녀의 히트 곡을 들을 수 있다.

팜페라 테너 휘진



일시 _ 11월 7일(금) 오후 7시30분
장소 _ 부평문화사랑방
티켓 _ 전석 1,500원
문의 _ ☎ 505-5995

아름다운 목소리와 호소력 짙은 가창력을 겸비한 팜페라 테너 휘진. 오페라에서부터 슈베르트의 가곡, 가요, 팝, 외국민요, 라틴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끼와 실력으로 한껏 뽐내는 휘진의 무대가 펼쳐진다.

소명의 유쾌상쾌통쾌



에서 펼쳐질 소명의 콘서트엔 김범룡, 추가열, 박진광 등 다양한 장르의 초호화 게스트의 우정출연과 역동적이며 화려한 연출의 묘미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일시 _ 11월 14일(금) 오후 7시30분,
장소 _ 인천삼산월드체육관
티켓 _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A석 30,000원
문의 _ ☎ 777-0011

독특한 퓨전 트로트를 바탕으로 성인가요계의 새 지평을 열고 있는 소명. 그룹사운드 보컬 출신으로 1987년 솔로 데뷔, 오랜 무명의 설움을 겪은 그는 ‘빠이빠이아’, ‘유쾌상쾌통쾌’를 연이어 히트시키며 일약 트로트계의 신성으로 떠올랐다. 이번 매머드급 공연장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펼쳐질 소명의 콘서트엔 김범룡, 추가열, 박진광 등 다양한 장르의 초호화 게스트의 우정출연과 역동적이며 화려한 연출의 묘미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인천의 건축 변천사

근대건축의 유입지인 인천의 건축 변천사를 재조명해 보는 사진작품 30여 점을 11월 1일부터 9일까지 신세계갤러리에서 전시한다. 인천의 근대 건축물들을 관공서, 교육시설, 상업시설, 종교 건축물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한 사진전으로 각 건물의 역사적 의미들을 재조명한다.



10월28일~11월2일 : 강화의 역사와 전통미술전/ 부평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10월31일~11월6일 : 일석 백래창 서예 개인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중앙·소전시실
10월31일~11월6일 : 윤석범 개인전 ‘아름다운 섬, 평평도’/ 인천시 평생학습관 갤러리 가운
10월31일~11월6일 : 제2회 소천 안정자 전(서예, 서각)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11월1일~11월9일 : 사진으로 보는 인천의 근대건축展 / 신세계갤러리
11월4일~11월9일 : 강길성 화백 ‘기억, 돌, 그리고’ 전/ 부평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11월7일~11월13일 : 인천사랑 미술대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11월7일~11월13일 : 제10회 도지성 개인전(서양화)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11월7일~11월13일 : 인천민족미술인협회정기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11월11일~11월16일 : "나눔희망의 아트마켓-Cotton Candy/展 / 신세계갤러리
11월11일~11월16일 : 중등미술교사 작품전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11월14일~12월7일 : 부평의 근대 교육사전/ 부평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11월14일~11월20일 : 2008인천건축문화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중앙·소전시실
11월14일~11월20일 : 제12회 박호식 개인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11월19일~11월23일 : 한하나 전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11월20일~11월24일 : 샘지길 특별展 / 신세계갤러리
11월21일~11월30일 : 제44회 전국공모 인천광역시미술대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11월27일~12월4일 : 인하대 미술학과 졸업작품展 / 신세계갤러리
11월28일~12월4일 : 제1회 인천문화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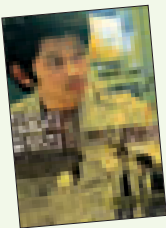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1월	4 제4회 11월의 만남 연극 '라이어 2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오후 7시30분 / 전석 2만5천원 ☎ 1544-2972	5 제4회 11월의 만남 연극 '라이어 2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오후 7시30분 / 전석 2만5천원 ☎ 1544-2972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30분 / 전석 1천5백원 ☎ 507-5996	6 제4회 11월의 만남 연극 '라이어 2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오후 7시30분 / 전석 2만5천원 ☎ 1544-2972	7 제4회 11월의 만남 연극 '라이어 2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오후 7시30분 / 전석 2만5천원 ☎ 1544-2972 팜페라 테너 유진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30분 / 무료 / 전석 1천5백원 / ☎ 505-5996	8 연극 '라이어 2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오후 3시, 6시 / 전석 2만5천원 ☎ 1544-2972 비보이와 함께 하는 개그콘서트 한중문화관 / 오후2시 ☎ 760-7860 컬투 쇼 '공연왕조15년'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30분, 7시30분 6만원, 5만원 / ☎ 1544-1555	9 연극 '라이어 2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오후 3시, 6시 / 전석 2만5천원 ☎ 1544-2972 컬투 쇼 '공연왕조15년'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6만원, 5만원 ☎ 1544-1555
11		12 오카리나와 플루트의 만남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30분 / 전석 1천5백원 ☎ 507-5996	13	14 제4회 11월의 만남 오페라 '보물상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오후 11시 / 전석 1만5천원 ☎ 420-2716~7 음악만들기 앙상블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30분 / 전석 1천5백원	15 제4회 11월의 만남 오페라 '보물상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오후 3시, 6시 / 전석 1만5천원 ☎ 420-2716~7 페어리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오후 3시 / 전석 6천원 ☎ 777-9140	16 제4회 11월의 만남 오페라 '보물상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오후 3시, 6시 / 전석 1만5천원 ☎ 420-2716~7 아름다운 소리 풍경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오후 7시 / 무료 ☎ 777-9140
	18 김진순작창 및 민요발표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오후 7시 / 1만원, 2만원 ☎ 무궁화예술단(881-9353)	19 국악 한마당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30분 / 전석 1천5백원 ☎ 507-5996	20 청소년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오후 7시30분 / 1만2천원, 8천원 ☎ 인음청소년교향악단438-6040	21 관현악합주곡의 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오후 3시 / 무료 ☎ 777-9140 대박이와 함께 놀아요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30분 / 전석 1천5백원	22 제4회 11월의 만남 연극 '영쟁이 유씨'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오후 3시, 6시 / 전석 2만5천원 ☎ 420~2716~7 미추홀요들단 정기연주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오후 6시 / 무료 ☎ 777-9140	23 제4회 11월의 만남 연극 '영쟁이 유씨'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오후 3시, 6시 / 전석 2만5천원 ☎ 420~2716~7 삼현육각 발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오후 3시 / 무료 ☎ 777-9140
25		26 인천시립무용단 제7회 I-dance 인천을 빛낸 차세대 무용가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오후 7시30분 / 1만원, 5천원 ☎ 인천시립무용단 420-2788 리어석 기타오케스트라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30분 / 전석 1천5백원	27	28 풍물패 더듬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30분 / 전석 1천5백원	29 인천시립극단 제50회 정기공연 '맥베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오후 4시, 7시30분 / 전석 1만5천원 ☎ 420-2790 남궁옥분 콘서트 한중문화관 오후 2시 / 무료 ☎ 760-7860	30 인천시립극단 제50회 정기공연 '맥베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오후 4시 / 전석 1만5천원 ☎ 420-2790

※ 공연 및 전시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영화공간

주안

집오리와 들오리의 코인로커



일본 작가 이사가 고타로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소설 특유의 섬세한 매력을 스크린으로 고스란히 옮기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특히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의 에이타, 〈나나〉의 마츠다 류헤이 등 스크린을 채우는 일본 청춘배우들의 활약이 눈을 즐겁게 한다.



콰이어트룸에서 만나요

‘콰이어트룸’은 발작이나 소동을 일으키는 환자들을 특별 관리하는 독방의 별칭. 여성 전용 폐쇄병원이라는 독특한 장소를 배경으로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의 사연들을 때론 유쾌하게 때론 연민 어린 시선으로 담담히 풀어간다. 아오이 유우, 구도 간쿠로, 츠마부키 사토시 등 조연들도 쟁쟁하다.

※ 영화공간 주안은 인천시 남구가 운영하는 예술영화관으로, 일반영화관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 개관시간은 오후 1시부터 10시이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 427-6777



혼인생활과 조세

부부 사이는 보통의 인간관계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재산관계에 대해서도 민법은 원칙적으로 혼인 당사자가 혼인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미리 약정하도록 하고 있고, 약정이 없는 경우 별산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법의 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혼인 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조세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단위 과세원칙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의 원천을 근거로 과세되는 소득을 종합소득으로서 ①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②퇴직소득, ③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과세방법으로는 납세의무자에 대해 일정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 모두를 합산하여 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방법을 원칙적으로 취합니다.

한편, 종합과세에 있어서 소득을 종합하는 인적단위를 과세단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각 개인을 별개의 독립된 과세단위로 하는 개인과세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공동사업소득에 대하여 가족을 단위로 하는 가족합산과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보유와 처분시 세대별 과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부과되고,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부과되며, 처분시에 시세차익을 얻었을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위 세금들 중 대부분의 세금은 개인과세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에 대해 부과되지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단위가 아닌 세대단위로 과세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단위인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이처럼 1세대의

구성에는 배우자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지만,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로 보게 됩니다.

증여세와 배우자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이것이 명의신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해야 하고, 단지 그 취득에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합니다. 그리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그 등기시에 부부 사이에 당해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원의 경매에 의한 경우, 파산선고로 처분된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해 공매된 경우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글 · 김형찬 변호사(법무법인 로시스 ☎ 861-5511)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

소극장 연극축제 11월의 만남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소극장 연극축제 ‘11월의 만남’은 관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준 높은 소극장용 우수공연들을 초청해 시민들에게 좀더 편안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획되었다. 공연 비성수기인 11월에 소극장 활성화를 위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매년 3편씩 선정하여 패키지 요금, 특별할인 등 합리적인 관람료로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첫 번째 작품 ‘라이어2’는 1탄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실마리로 더욱 탄탄하게 다져진 이야기와 새로운 인물들의 등장으로 재미를 더한다. 세월의 흐름을 초월한 오해의 극적 충돌과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속도감과 전개로 유쾌하게 풀어어나가는 아이러니한 실소가 넘치는 블랙 코미디이다.

두 번째 작품 ‘옴니버스 마술극 보물상자’는 마술과 스토리가 있는 공연으로 관객들의 박수를 절로 이끌고, 눈을 한번도 땔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삶의 모습을 마술과 웃음 있는 무대, 그리고 사랑의 드라마가 있는 무대로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 내게 한다.



세 번째 작품 ‘염쟁이 유씨’는 죽음을 소재로 한 연극으로 작품성이 있는 공연은 ‘재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을 무색하게 한다. 공연을 보는 순간 웃음과 감동 그리고 뜨거워지는 자신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공연명	날짜	시간	관람료
라이어2탄	11월 4일(화) ~ 7일(금)	오후 7시30분	25,000원
	11월 8일(토) ~ 9일(일)	오후 3시 / 6시	
옴니버스 마술극 보물상자	11월 14일(금)	오전 11시	15,000원
	11월 15일(토) ~ 16일(일)	오후 3시 / 6시	
염쟁이 유씨	11월 22일(토) ~ 23일(일)	오후 3시 / 6시	25,000원

문의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예술지원과 ☎ 420-2717

외로우세요? 힘드세요? 인천이 곁에 있습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라고 했던가. 한 시인이 말했듯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일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시가 전문센터를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당신을 응원하고 있으니, 이제 그만 지친 어깨를 기대어도 좋다.

글·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홍승훈 자유사진가



시대의 연인이었던 한 탤런트의 죽음으로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브라운관에서 스크린에서 반짝반짝 빛나던 그녀는 이제 없다. 세상의 주목을 받던 평범하진,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외롭다. 그래서 한 시인은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시가 각종 사회복지사

업을 통해 시민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생계는 물론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실직자, 장애인, 불우 청소년, 노인 등 소외받는 이웃들이 밝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홍보활동을 벌이고, 예산을 들여 전문센터를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마음의 병 치유해드립니다

우울증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마음의 감기에서 시작된 병은 방심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는 정신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센터를 설치, 위탁 운영해 오고 있다. 시는 현재 정신보건센터 8개소와 알콜상담센터 3개소, 치매보호센터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중으로 광역정신보건센터를 개소할 방침이다. 이들 전문센터는 24시간 열린 상담으로 자살을 예방하고, 정신과 진료와 상담의 문턱을 낮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지고 있다. 1999년 우리시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중구정신보건센터는 전문의 상담은 물론, 지속적인 전화관리와 가정방문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있다. 더불어 정신장애우들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음악치료와 원예치료, 컴퓨터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을 정신건강 검진의 날로 정하고 성인우울증과 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등의 검사를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센터 이용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 정신보건 관련 상담·지원처

- 정신건강전화 ☎ 1577-0199
각 정신보건센터에서 통합 운영하는 24시간 정신상담 전화.
- 중구정신보건센터 ☎ 760-6090~5 | www.happymind.or.kr
인천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정신보건센터. 센터를 이용하려면 접수 및 예약한 후 초기 상담 및 평가를 거쳐 회원으로 등록한다.
- 인천시정신보건사업단 ☎ 760-6096 | www.icmh.or.kr
정신보건 사업에 필요한 기획, 평가, 지원사업 등을 담당한다.

아름답게 늙어가도록 돕겠습니다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구 10명당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었다. 통계청은 노인인구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해 2026년에는 1천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듯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사회는 오히려 대가족의 붕괴에 따른 독거, 학대, 자살, 실직 등의 문제로 노인



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급, 저소득노인인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효 문화 사업과 독거노인 멘토링 시범사업, 노인문화센터 확충 등의 노인복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문을 연 인천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기관은 먼저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사례집 발간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 전화와 온라인상담은 물론 현장조사를 통해 노인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어 학대 받는 노인들이 위급한 상황일 때 일시적 이나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은빛 쉼터 사업을 펼치고 있다.

■ 노인복지 관련 상담·지원처

- 노인학대상담전화 ☎ 1577-1389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노인학대 상담전화. 전화를 하면 가까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된다.
- 인천시노인보호전문기관 ☎ 246-8792, 3 | www.ic1389.or.kr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도록 홍보활동과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노인상담과 일자리창출 및 쉼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아이와 어른사이에 서 있는 청소년기에는, 인생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친구와 조언자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시는 어려운 청소년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기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는 등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따스하게 어루만지고 있다. 직업체험센터, 성문화센터 등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시설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의 지친 어깨를 다독이고 밝은 길로 인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우리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상담, 인터넷 중독 치료 사업, 위기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 상담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는 상담은 24시간 열려 있으며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급박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전화와 일시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직접 현장으로 나가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연계해 주기도 한다. 이와 함께 부설로 청소년집단괴롭힘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외톨이' 청소년들의 마음에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친구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청소년 관련 상담 · 지원처

- 청소년 전화 Help Call ☎ 1388
24시간 열려 있는 청소년 상담전화.
- 인천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 432-0717 | www.inyouth.or.kr
보건복지부와 우리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인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 446-1318 | www.isc.or.kr
청소년들이 과학적인 성지식과 올바른 성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성교육문화체험학습을 제공한다. 문학경기장 축구장 1층에 위치한다.
- 청소년 웹진 MOO <http://moo.incheon.go.kr>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웹진으로, 청소년들의 소통공간이자 정보의 장.

여성과 가정의 행복 지켜드립니다

최근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2007년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47.4%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미국과 스웨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안타깝게도 우리시의 이혼율도 2006년 기준 연 8천여 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할 만큼 높다. 1992년 문을 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는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화해조정과 무료대서, 법률구조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12월부터 이혼숙려기간 위탁상담을 해오고 있다. 합의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인천 지방법원에서 이혼 보류판정을 받으면 이곳에서의 상담이 이뤄진다. 상담은 변호사, 교직자를 비롯해 전문상담기관에서의 상담경력이 있는 전문위원 60여 명에 의해 진행된다. 또 나와 내 가족을 돌아보게 하는 진솔한 상담은 물론 분노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 부부대화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은 어긋난 혼인 관계를 바로 잡는 길을 제시한다.

■ 여성 · 가정 관련 상담 · 지원처

- 여성긴급전화 1366
☎ 1366, 863-1367 | www.incheon1366.or.kr
여성을 위한 24시간 상담과 긴급보호조치, 쉼터 등을 제공.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 ☎ 438-1113, 4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 구조기관.
- 인천YWCA가정폭력상담소
☎ 1566-0810 | www.15660810.or.kr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조언과 상담을 지원한다.
- 가정 · 성폭력통합상담소 ☎ 864-1365 | www.inwomen.org
인천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 전문상담과 부부프로그램, 심성개발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부족함은 사랑으로 채워드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홉 개를 가지고도 그 소중함을 모른 채 남은 하나를 채우기 살아 간다. 하지만 주위의 사랑과 관심만 있다면 단 하나를 가졌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우리시는 장애우들이 좀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복지제도를 펼치고 있다. 먼저 장애우용 순환 버스를 8개 권역 10개 노선으로 확대 운행하고, 콜밴을 수시로 운행하는 등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우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상생활과 가사활동, 신변처리 등 일상적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나눔과 존중 그리고 소통'을 내걸고 지난해 11월 개관했다. 복지관은 전문상담치료사의 지도 아래 심리치료실과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중증장애우를 보호하는 주간보호센터와 사회활동을 앞 둔 장애우들을 위한 보호작업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장애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장애우 관련 상담 · 지원처

- 장애인 전화 ☎ 1588-0420 | www.0420.or.kr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24시간 장애인 관련 상담 및 지원을 한다.
-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 426-1382~5 | www.namjang.or.kr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치료, 재활 등 전문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노틀담복지관 ☎ 542-3711~5 | www.ntd.or.kr
장애인직업훈련기관으로 운영하다 지난 98년부터 복지관으로 기능을 전환했다. 우리시가 추진 중인 장애아동 자세유지기구 및 이동기기 확대 보급사업의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좋은 일자리 책임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 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비단 취업전선에서 소외된 노인, 여성, 장애우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앞날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야 할 청년들까지도 실업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 우리시는 이 같은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143조6천억원을 들여 90만3천명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취업 관련 상담을 지원하고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센터는 현재 시에 1개소, 군 · 구에 10개소가 설치돼 있으며, 각 센터마다 전문직업상담사를 배치해 구직자들을 돕고 있다. 취업알선은 국가고용안정정보망인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이뤄지며, 그밖에 노동부와 시에서 시행하는 실업자훈련과 청년 인턴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주간에 취업정보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전직 희망자와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야간취업상담실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야간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이후에 진행되며, 그 밖의 요일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 취업 관련 상담 · 지원처

- 시 취업정보센터 ☎ 440-2677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 대상 취업 정보센터. 전문직업상담사로 부터 취업상담을 받고 일자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취업정보센터는 민원동 3층에 위치한다.
-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 460-4701~4 | <http://gyeongin.jobcenter.go.kr>
구직정보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기업지원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인천지하철 문화예술회관역 10분 출구 근처에 있다.

세계의 나그네, 지구의 방랑자

김찬삼 교수

카툰니스트 · 이영호 (kaljebi@paran.com)

다음 달에 유럽여행을 떠나는 데 처음이라 막막해...

그럼 인천의 '세계여행 문화원'을 한번 가봐. 세계여행의 길잡이가 될꺼야.

오늘은 세계의 방랑자, 김찬삼 교수를 만나볼까요?

인천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여행가, 김찬삼!

그는 인천 앞바다를 보며 세계일주의 꿈을 키웠다.

저 바다 건너엔 어떤 세상이 있을까?

그런 그가 1959년 첫 해외 여행을 시작하였고,

지구를 32바퀴를 돌며 세 번의 세계 일주를 했다.

여행은 그에게 삶 그 자체였고 숙명이었다.

밥은 안먹어도 날지만 여행을 안하면 죽을 것 가아~

14년 동안 160여 나라, 1천여 도시를 발로 누비며 세계를 품에 안았다.

직접 체험한 경험을 살려 '김찬삼의 세계일주 여행전집' 등 여러권의 책을 남겼다.

그의 책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세계여행을 간접 체험할 수 있었다.

그가 지구촌을 누비며 귀국하면 항상 찾던 곳이 영종도였고

아~내 고향 같은군...

이곳에서 다음 여행을 계획하며 새로운 기운을 되찾았다.

다음 여행은...

김교수는 2003년 하늘나라로의 여행을 떠났고

마지막 여행지는 하늘로~!!

그가 머물던 영종도에 그의 아들 이장섭씨가 '세계여행문화원'이란 문패를 달았다.

그가 사용했던 물건과 책이 가득한 이곳은 여행가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 주기도 한다.

우리도 김찬삼 선생같은 여행가가 되고 말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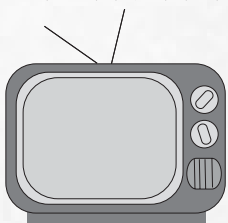
“선생님! 텔레비전 망가졌어요!”

반장을 포함한 우리 반 학생들이 흥분한 모습으로 우루루 몰려왔다. 교무실 문을 활짝 열고 크게 소리치는 학생들이 데리고 서둘러 교실로 갔다. 맏소사! 텔레비전 모니터가 완전히 박살난 것이다. 학생들은 모처럼 신나는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삼삼오오 모여 탄성을 지르고 떠들고 있었다. “누구야! 누가 텔레비전을 부순 거니? 누구냐고?” 물을 끼얹은 듯 감도는 정적. 언제 그랬냐는 듯 제자리에 앉아서 책을 뒤적이는 아이들. 물론 이 상황에서 자신이 그랬다고 나서는 크게 혼날 것이 두려웠겠지만... 이 큰 일을 저지르고도 태연하게 앉아 거짓말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A4 용지를 나누어 주고 비밀리에 사진의 경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수리비를 40명으로 나누어 건었다.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을 부순 학생을 고문하듯이 틈만 나면 양심과 공공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댔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빗자루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텔레비전을 망가뜨렸어요. 그 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못 그랬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는 쪽지와 함께 돈 20만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놀라서 학생을 불러 큰 돈이 디서 났느냐 물었더니 확변비란다. 그 날, 나는 아침까지 식탁에 앉아서 포도주 한 병을 다 비우고서야 잠에 들었다. 내가 학생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란 말인가. 나 혼자 텔레비전 수리비를 물어낼 것이 억울했나? 바로 자백하지 않은 학생이 괴씸했나? 나의 대처가 학생들에게 양심과 공공기물에 대한 교육에 도움이 됐나? 학생들보다 더 흥분해서 짧은 생각으로 처리했던 텔레비전 고장 사건! 어느덧 8년이 지났다. ‘철없던 선생님과 함께 한 나의 첫 제자들아, 잘 살고 있지?’

이수진

신기하고 놀라워라

내가 초등학교 시절이었다. 시골에 살았는데 전기가 없다가 어느 날 전기가 들어와서 이런 좋은 것이 있구나~ 하고 놀랐다. 그 후 라디오를 들을 수 있었고 몇 년 후 텔레비전이라는 것을 알았다. 처음 우리 동네 누군가가 텔레비전을 구입해 동네사람들이 다 구경했고 이어 한 가구 두 가구 텔레비전이 늘어났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집에도 텔레비전이 생겼다. 형님이 타지에서 돈을 벌어서 텔레비전을 구입하라고 돈을 보내온 덕분이었다.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들어오던 날 얼마나 신기하고 놀랐던지... 실외 안테나와 실내 안테나를 잘 고정시키고 양쪽 미닫이문을 열어야 화면이 나오고 부모님 허락 하에 시청할 수가 있었다. 그 귀하던 텔레비전이 오래되면 화면이 지지직거리고 흐려진다. 그럴 때면 텔레비전 박스를 이리 저리 때려보고 어쩌다 잘 나오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래도 안나오면 지붕위 안테나를 이리저리 방향을 바꿔보며 한참 실랑이를 하면서 겨우 봤다. 그러다가 어느날 아주 먹통이 되었다.



어린 나는 빨리 새로운 텔레비전을 샀으면 좋겠는데 시골에서는 그다지 여유가 없었기에 그냥 보내다가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을 봐야한다고 올림픽 개막식 열리는 날 컬러텔레비전을 구입하게 되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올림픽 개막식을 눈을 떼지 못하고 보는데 참 신기하다는 것을 또 한번 실감했다. 40대 중반의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들은 깔깔거리고 웃는다. 요즘 텔레비전은 멀티, 벽걸이 별게 다 나오고 멀리 앉아서도 리모컨하나면 다 해결된다. 요즘 아이들은 다 갖춰져 있고 새로운 것이 생겨나도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다지 놀랍고 신기한 걸 모르는 것 같다.

이기섭_계양구 박촌동

방송 탄다구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여 삼계탕이 먹고 싶어 소문난 맛집을 찾아갔다. 음식점은 입구에서부터 발디딜 틈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방송국에서 나왔는지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찍고 있는 모습이 멀리서 보였다. 우리는 ‘진짜 유명한 곳이구나’ 하며 흐뭇해하면서 도 불안감에 휩싸였다. 정말 꾸미지 않은 ‘뽕알’ 이어서 방송에 나와도 아무도 못 알아볼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음식이 나와서 먹으려고 하는 찰나 카메라가 얼굴 바로 앞에 다가오더니 PD와 카메라맨이 질문을 퍼붓었다. 친구들과 난 얼굴을 가린 채 대충 얼버무렸다. 방송국 사람들이 판 테이블로 가길래 안도의 한숨을 쉬며 수다를 떨며 식사를 했다. 그런데 10분 있다가 카메라가 또 와서는 한 명 한 명 클로즈업해서 찍더니 나한테 멈추었다. PD가 먹는 모습이 복스럽다며 한참을 찍는 것이다. 난 기분이 좋아져서 질문에도 척척 대답하고 없는 표정도 지으며 촬영을 마쳤다. 식사를 끝내고 음식점을 나서려는데 피디가 꾸벅 인사를 하며 방송이 나오는 프로그램과 시간을 알려주었다. 방송이 나오기 전날 친인척과 친구, 직장동료들에게 꼭 그 방송을 보라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 태어나서 처음하는 텔레비전 출현이 아니던가. 마음이 들뜬 채로 가족들과 텔레비전 앞에 모였다. 그런데 눈을 비비고 아무리 쳐다봐도 나는 나오지 않았다. 그 많은 분량을 통째로 편집을 했는지 친구들과 나는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이다. 그때 그 배신감과 창피함이란...

정혜림_남구 송의2동



멀쩡한 텔레비전을 또 사다니...

남편의 직업은 군인이었다. 직업상 한 지역에서 오래 생활 하지 못하고 여러 지방을 다니게 된다. 그러다 보니 가전제품을 새 것으로 바꾸지 않고 대부분을 오랫동안 사용했다. 결혼 살림살이로 구매했던 장롱도 20년 가까이 사용했으며 텔레비전도 13년, 냉장고는 8년째 사용하고 있다. 지금은 군에서 전역 후 새로운 직장을 가지

면서 인천에 터를 잡고 살게 되었다. 새로 살아갈 집을 정리하고 가구도 바뀌며 이사를 한 지 3년이 지났다. 하루는 식구들과 저녁을 먹고 재미있게 텔레비전을 시청하는데 갑자기 화면이 흐려지면서 잘 나오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다른 식구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다. 이사할 때 텔레비전을 새 것으로 바꾸자고 남편과 딸이 계속 얘기 했지만 잘 나오는데 뭐 하러 쓸데없이 돈을 쓰냐면서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창 일일 연속극에 빠져 꼬박꼬박 챙겨 봐야 하는데 화면이 흐리고 연기자들의 대사마저도 잘 안 들리니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었다. 다음날 바로 전자제품 가게에 가서 ‘이왕 사는 거 최신으로 사버리자’ 라는 마음으로 새로 나온 Full HD 42인치 텔레비전을 계약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새 텔레비전이 들어오는 날 혹시나 해서 딸이 텔레비전 뒷부분을 보니 안테나선이 느슨하게 빠져 있었다. 다시 선을 똑바로 연결하니 텔레비전이 정말 선명하게 나왔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는가? 계약은 취소할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바로 새 텔레비전이 배달되었다. 매일 텔레비전 바꾸자고 노래를 부르던 딸은 내 속도 모르고 어쩌나 좋아하던지... 돈을 절약 할 수 있었던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화면이 크고 선명한 텔레비전을 보면서 마음을 달래는 중이다.

임혜숙_계양구 용종동

잘 나와~? 아니~

88올림픽을 하기 전인 것 같다. 그 때만 해도 TV를 보려면 안테나를 집집마다 달아야만 했다. 높다란 금속 장대에 알루미늄 봉들이 양옆으로 여러 개 매달려 있는 것인데, 지금은 다들 케이블 방송을 보고 있으니 그런 안테나 보기가 흔치 않다. 그때 우리 집에선 이 안테나가 마당 장독대 옆 작은 담벽에 철사 줄로 묶여 있었다. 지금은 TV 화면이 깨끗하게 잘 나오지만, 그 시절엔 잘 나오다가도 어느 순간에 지지직거리며 만화주인공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누나는 어김없이 나를 장독대로 파견보냈다. 나는 작은 담벽 위에 올라 안테나를 돌리며 큰방을 보고 외쳤다. “잘 나와~?”, “아니~”, “그럼 반대로 돌려본다. 잘 나와~?”, “아니~아니~” 조금 돌리기도 하고, 크게도 돌려보고, 비 맞은 안테나의 녹슨 물이 손바닥에 배어들 때까지 계속 돌리는 것이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누나가 환호성을 내면, 후다닥 달려가선 다시 즐겁게 텔레비전을 보았다. 누나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참 힘들다. 안테나를 돌렸다가 다시 방으로 뛰어가서 화면을 보고, 안되면 다시 나갔다 들어왔다는 연거푸 해야 했다. 안테나가 가만히 있어주면 고마울텐데 야속하게 바람 따라 안테나도 곧잘 춤추니 텔레비전 보기를 포기한 날도 많았다. 안테나를 붙잡으며 질러대던 소리가 컷가에 어렴풋이 되살아난다. “잘 나와~?”, “아니~”, “에이, 이젠 누나가 해!”

변상조_남동구 만수1동



그때 그시절



어릴때 시내가 아닌 시골에서 자랐다. 초등학교 시절 그때는 집이 가난해서 텔레비전이 없었고 라디오만 있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 보고 싶을 때면 꼭 할머니집에 가서 보고 오기도 했었다. 특히 그때 그 시절 한참 유행이라면 유행이고

전설의 고향이 특수철이었다. 그것도 밤 시간에 전설의 고향을 하기 때문에 미리 가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전설의 고향이 시작이 되면 볼 때는 재미있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었다. 그런데 문제는 동네 가로등이 없던 터라 밤이 되면 어두컴컴하고 적막한 분위기였다. 그래서 전설의 고향이 끝나고 나면 웬지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기도 했지만 꼭 뒤에서 귀신이 따라올 것만 같은 생각에 서둘러 걸어가기도 하고 발자국 소리가 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쫓겨나기까지 다해 집까지 뛰어가기에 바빴다. 집으로 들어가서는 방문을 잠고 안도의 한숨을 쉬던 그런 때가 아주 많았다. 할머니 집에 가지 못할 때에는 아래 집에 가서 보고 싶다고 말하면 그집 주인이 “느그들 오지마, 느그 집에 가”라고 하면서 쫓아 보내기도 했었다. 그때는 어릴 때라서 마음속으로 ‘홍, 치사하게 텔레비전 있으면 다야’ 하고 부르짖으며 집에 달려갔었는데 그래도 텔레비전이 보고 싶어서 가까운 아래 집에 가서 살짝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보려고 애를 썼던 적도 있었다. 가끔 그때 그 시절이 그림던 때가 있기도 하다. 요즘에는 텔레비전이 없는 집이 없어서 보고 싶은건 다 보고 살기 때문에 그때처럼 그림자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 시절도 그리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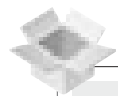
전미숙_옥련동 서해아파트

다음달 테마는 ‘운전면허증’입니다.

‘운전면허증’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연을 글로 보내주세요 (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계절과 어울리는 재미있고 사연이 담긴 작품을 보내주세요. 게재된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책에 글이나 사진이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인터넷 : 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11월 16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 440-8302)



info box

지식재산센터 이용하세요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는 인천

지역 특성에 맞는 고품질의 지식

재산권의 창출·활용·보호를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중소기업

업의 지식경쟁력 강화와 발명문화조성을 위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등산업재산권 출원에서 사업화까

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특허정보 종합상담실 운영(연중)

－ 장소 : 인천지식재산센터(인천상공회의소 5층)

－ 상담분야 : 지식재산권 제도 전반(특허기술 정보검색, 각종 출원서식, 전자출원지원 등)

－ 비용 : 무료(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무료변리상담실 운영

－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

－ 장소 : 인천지식재산센터(인천상공회의소 5층)

■ 지식재산권 인식 확산

－ 산업재산권 현장맞춤 무료교육 연중추진(일시, 장소, 강의 내용 등 수요자요구에 의한 맞춤교육 지원)

－ 지역발명축제 및 발명경진대회

■ 특허정보종합컨설팅

－ 특허·실용신안 국·내외 출원비용 지원

－ 특허기술동향조사(PM) 지원

－ 특허스타기업 육성 지원

－ 선행기술조사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인천지역 중소기업·벤처기업 및 개인발명가

－ 지원비용 : 특허출원(국내) 1건당 70만원, 실용신안출원(국내) 1건당 50만원

※ 업체당 연3건, 개인당 연2건

■ 신청안내

－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incham.net) 공지사항의 '2008년 특허/실용신안 출원지원사업 신청안내' 참고하여 신청

■ 문의 :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

☎ 810-2872~4, FAX 810-2837

환경지도자 전문학교교육과정 수강생 모집합니다

성산호대학원대학교 부설 환경지도자대학에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교육대상 : 환경교육에 관심있는 공직자, 직장인, 일반인

■ 모집정원 : 기별 150명

■ 모집기간 : 년 4회(3, 6, 9, 12월 수료) 한번 등록된 학생은 연속 해서 수강할 수 있음.

■ 교육기간 : 11월 4일(화)~12월 13일(토)

■ 교육시간 : 매주 화·목요일 오후7시~9시 이론학습,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현장학습)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주민등록등본 2통, 사진 6매(반명함판)

■ 교육내용 : 보건환경, 수질·대기환경, 폐자원관리, 소음진동 등 이론학습, 현장체험학습 및 교육평가

■ 교육장소 : 성산호대학원대학교 부설 환경지도자대학(인천시 남 구 주안 6동 922-1 향군회관 4층)

■ 수강료 : 40만원(교재비, 체험학습(현장이동 교통비), 졸업사진대 금 포함)

■ 특전

－ 성산호대학원대학교 총장 수료증수여

－ 환경지도사자격증 발급

－ 명예환경감시원증 발급

－ 환경부기술개발센터 환경정보 제공

－ 체험 및 우수활동자 선발 표창

－ 학우회, NGO위원 활동

■ 문의 : 인천환경사랑 평생교육원

☎ 423-1183~4 FAX 423-1155

미추홀문화회관 수강생 모집

미추홀 문화회관에서는 하

얀 눈처럼 마음이 포근해지

는 겨울을 맞이하여 다채롭

고 유용한 문화체험 프로그

램을 마련해 보다 가깝고 친

숙하게 문화생활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제30기 겨울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아울러 실생활에

적용하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실용강좌와 방학을 맞아 어린이

들이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방학특강 및 체험행사 등 내실 있는 여

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1. 정규강좌

■ 접수기간 : 11월 3일(월)~12월 6일(토)

■ 강좌기간 : 12월 1일(월)~2009년 2월 21일(토) (3개월)

■ 장소 : (신)중구보건소 4층 미추홀문화회관

■ 대상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일반인, 직장인



■ 강좌 : 공예 / 미술 / 무용 / 음악 / 어학 / 교양 / 건강 / 스포츠 / 창의력 계발 / 학습 계발 / 임산부 / 전문인 양성 및 자격증반 / 창업반 / 미용 / 어린이요리

2. 문화시민을 위한 무료 강좌(3개월 과정)

■ 어린이 : 어린이 한자, 어린이 중국어, 멋지고 신나는 요들나라

■ 청소년 : 청소년 연기수업교실

■ 성인 : 서예 교실, 서양화 쉽게 배우기-유화기초반, 주부 연극 & 뮤지컬, 성악 - 초급, 스윙댄스, 신나는 차밍댄스, 수필창작과 문학의 이해, 디캐! 필캐! 사진 촬영, 일러 화화, 실버한국무용, 중국어 회화, 아름다운 전통 도자기

3. 스피드 1일 특강

■ 전통매듭 : 12월 1일(월) 오후 12시 ~ 1시

■ 펠트 : 12월 2일(화) 오후 12시 ~ 1시

■ 오가닉 : 12월 5일(금) 오후 12시 ~ 1시

■ 컨쥬리 소품 : 12월 3일(수) 오후 12시 ~ 1시

■ 리본공예 : 12월 3일(수) 오전 10시 ~ 11시 30분

■ 선물포장 : 12월 3일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 홈패션 : 12월 4일(목) 오후 5시 ~ 6시 20분, 오후 6시 40분 ~ 8시, 12월 6일(토) 오전 10시 ~ 11시 20분

■ 품아트 : 12월 1일(월) 오후 12시 ~ 1시

■ 한지공예 : 12월 4일(목) 오후 12시 ~ 1시

■ 문의 : 미추홀아트센터 ☎ 765-0220, 0250 / 홈페이지 www.mchart.co.kr

축제 한마당 열립니다

미추홀 문화회관 회원들이 1년

여 동안 열심히 활동하여 배워

온 모든 솜씨와 실력의 결실을

펼쳐 보이는 축제의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1. 전시 한마당

■ 일시 : 11월 25일(화)~11월 30일(일) 오전11시~오후6시

■ 장소 : 인천예총 문화회관 제1·2 전시실 (수봉공원)

■ 전시내용 : 공예(DIY 가구공예, 꽃꽂이, 데코파주, 프레스플라워, 어린이 도자기, 생활도자기, 생활양재, 에그아트, 고무찰흙, 쿨트, 펠트, 패션페인팅, 홈인테리어, 선물포장&리본, 종이접기), 미술(데생, 수채화, 인물화, 유화, 서예, 어린이 미술, 데생과 스케치, 파스텔화, 흙스케치), 사진촬영교실, 수필창작, 책읽기&논술

2. 어울림 한마당



■ 일시 : 11월 29일(토) 오후 1시30분~

■ 장소 : 인천예총 문화회관 소극장(수봉공원)

■ 1부 발표회 : 즐거운 동요나라, 키즈프리발레, 성악교실, 뮤지컬잉글리쉬, 인천향토 춤사위, 주부연극, 성인재즈댄스, 동화구연, 아코디언, 성인발리댄스, 드럼

■ 2부 발표회 : 오카리나, 글로리발레, 주부요들&하모니카, 어린이재즈댄스, 바이올린, 성악재능교실, 하모니카, 플룻, 교육연극&뮤지컬, 요들송, 뮤지컬잉글리쉬, 어린이발리댄스, 클라리넷

■ 문의 : 미추홀문화회관 ☎ 765-0220, 0250

남인천중고등학교 학생모집

아직도 배우지 못한 한을 가슴속에

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남인천

중·고등학교로 오십시오.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정규

중·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고 정식

졸업장을 드리는 이곳은 당신이 한

때 가졌던, 그리고 아직도 당신 가슴

속에 작은 불씨로 남아 있는 그 꿈을 실현시키는 곳입니다. 지금

신청 하십시오!

1. 모집인원 : 중학교 5학급(225명), 고등학교 3학급(135명)

－ 중학교 과정은 수업료 및 교과서 무료

2. 입학자격 : 만 20세 이상 성인으로 초등학교(중학교)졸업자 또는 중입(고입) 검정고시 합격자

3. 구비서류

－ 입학원서 1부(본교 소정 양식)

－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7매(3cm × 4cm)

－ 본인도장

－ 전형료 3,000원

4. 전형일자

① 원서접수기간 : 10월 1일 ~ 선착순 접수

② 원서접수장소 : 본교 3층 교무실(선착순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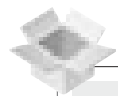
③ 예비소집일 : 2009년 2월 20일(금) 오전 10시 본교 4층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문의 : 남인천중·고등학교 ☎ 863-9941~2 / 인천광역시 남 구 학익1동 686-8





info box

INS독서논술지도자 대학 수강생 모집합니다

성산호대학원대학교 부설 INS독서논술 지도자대학에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교육대상** : 초·중·고생 학부모, 학원장 및 강사, 학원 및 공부방운영 예정자, 현직교사
- **모집정원** : 기별 100명
- **모집기간** : 년 4회(3, 6, 9, 12월 수료) 한번 등록된 학생은 연
- **교육기간** : 11월 4일(화)~12월 13일(토)
- **교육시간** :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12시 이론학습,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현장학습)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주민등록등본 2통, 사진 6매(반명함판)
- **교육내용** : 교육학, 독서지도법, 논술지도법, 발달심리 등 이론과 실기
- **교육장소** : 성산호대학원대학교 부설 독서논술지도자대학(인천시 남구 주안 6동 922-1 향곡회관 4층)
- **수강료** : 50만원(교재비, 현장학습 버스비, 사진대금 포함)
- **특전**
 - 수료 후 소정의 검정을 거쳐 자격증 발급
 - 학원 및 공부방 운영 지원
 - 초·중·고 특기적성교사 추천
 - 아임노스언어논술연구원 분원 개설 지원(학습교재 지원, 강사지원, 지속적 보수교육)
- **문의** : 아임노스언어논술연구소 ☎ 423-1183~4 FAX 423-1155



「행복나래」에서 은퇴자금 계산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준비·생활에 관한 양질의 콘텐츠를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종합 포털사이트 '행복나래' (<http://csa.nps.or.kr/>) 를 오픈했다.

- **재무, 건강 등 노후설계를 위한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행복나래에서 반드시 이용해 봐야 하는 것은 노후설계자가진단 서비스.
회원가입 등 별다른 절차 없이 진단이 가능하며, 특히 국민연금 예상연금액을 포함하여 노후설계를 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생애주기(Lifecycle)에 따라 결혼, 주택, 교육, 창업자금도 계산이 가능하므로, 각자의 필요에 따



라 이용하면 된다. 자신의 건강상태가 궁금하다면 건강진단도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다.

- **개인별 구체적 상담은 노후설계상담(CSA) 이용**
이 밖에도 「행복나래」는 노후에 필요한 정보를 재무, 건강, 일, 여가, 주거, 대인관계라는 여섯 가지 카테고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개별상담을 원한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노후설계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국민연금이 2003년부터 준비해 개발한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일자리 관련 정보, 노후자금마련을 위한 국민연금 활용법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문의** :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 ☎ 451-0753

교통사고 과실 비율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교통사고 건에 대해 책임소재를 나타낸 것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시 피해자의 과실부분을 상계한 액수를 지급한다.



- **달라진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보아 명확하지 않은 과실비율을 적용해 분쟁의 소지가 많았는데, 이제는 '동법 제49조 10항(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반영하여 운전자 과실 비율이 10% 가산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만13세 이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 교통사고 피해자는 종전 15%에서 현재는 5%로 감경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낮추었다. 더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1차 사고가 발생하고 정차 중인 차량을 뒤에서 다시 추돌한 사고의 경우 추돌 차의 과실비율이 80%이며, 주차장내에서 후진하는 차와 직진하는 차가 충돌할 경우 후진 차의 과실 비율을 75%로 하는 기준이 신설되었다.

- **흔히 발생하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연말에 송별회나 송년회로 만취 상태에 차 밑에서 잠을 자다가 차가 출발해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도 최대 40%의 책임이 있다. 또한 만취상태에 차도에서 택시를 잡다가 지나가던 차에 충격되었을 경우 피해자에게 30~50% 과실이 적용된다.

가해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이륜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 과실 비율 10%~20%까지 인정되며, 버스 급정거 시 승객이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하면 10%~20%의 책임이 있으므로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 동승자도 자신을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문의** :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 830-6162

ITC 인천국제정보산업전시회 열립니다

ITC2008 인천국제정보산업전시회가

11월 13일(목)~15일(토)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서 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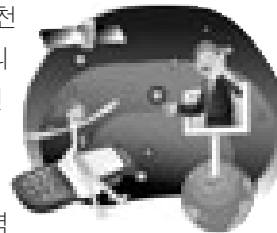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미래를 오늘로'

(Experiencing Tomorrow Today, ITC2008)라는 주제로, 역

동적으로 변화하는 인천의 미래와 대한민국 IT신기술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 **전시 분야**
 - 정보통신 분야(Information & Communication Zone, Industrial Equipment Zone)
 - 3G 휴대폰, PDA, 네트워크 솔루션 및 제품, 유무선 인터넷 솔루션 및 제품, 원격회의시스템 등
 - DMB 관련 제품 및 방송기기, 디지털가전 및 컨버전스 제품, GPS 및 네비게이션, HD 및 디지털 TV 등 Display 기기
 - 디지털콘텐츠 및 SW분야(Multimedia & Game Zone, SW Solutions Zone)
 - 모바일 콘텐츠 및 애니메이션, 영상, 무선/모바일 게임, PC 및 온라인 게임, 음향 및 음악, 아케이드게임, Software 등
 - 차세대 신기술 산업분야(Ubiquitous & Robot Tech Zone)
 - WiBro, 텔레메틱스, RFID, BCN, USN, 홈 네트워크, 로봇 전 분야, 차세대 이동통신, 실감형 3D기술
 - **주요 전시회 내용**
 - 국내외 글로벌 IT산업분야 초청기업 및 스타기업 제품전시
 - 국내 각 지방소재 IT산업분야 중소(벤처)기업 제품전시 및 홍보



- 인천 IT기술상 시상식 개최 및 수상기업 특별관 구성
- Robot Tech Zone, Ubiquitous Zone 등의 지역 특화분야 전시
- 모바일 및 통신서비스, SW 및 솔루션, IT가전, 디지털콘텐츠 우수기업

- **부대 행사**
 - 인천로봇랜드 및 인천세계도시축전, 실감형 3D관 등 특별홍보관
 - 해외 빅با이어 초청 비즈니스 상담관 운영
 - 해외바이어 초청 "Global IT Trade Mission" 및 사이버 수출상담회 개최
 - 지역 유망 SW기업 제품발표회 및 수출상담회
 - "인천 로봇랜드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전시
 - VR체험관, 최신게임체험관, SK와이번즈 팬사인회, 비보이 공연, IT경품행사 등의 참관객 체험 이벤트 개최
 - 카 오디오 및 4x4 오프로드 카 페스티벌 개최 등
- **문의** : ITC박람회 마케팅지원팀 ☎ 250-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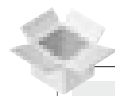
카지노 사업 등 해외사업 투자사기 주의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P씨(남·47세)는 마카오 카지노사업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2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박씨는 6개월간 매월 배당금으로 투자금의 20%를 받기로 하였으나 지금까지 배당금뿐 아니라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카지노 사업 등 해외투자사업을 가장해 자금을 모집하는 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 **투자사기 혐의업체는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익성이 없는데도 시종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투자사기 혐의업체의 유형 〉

- 외유전 개발, 카지노 사업, 통화선물거래 등 해외사업 투자를 가장
- 비상장주식매매, 우회상장, 기업 M&A를 가장
- 투자자문, 대출중개, 자산운용, 보험대리점 등 국내 금융업을 가장
- 상가분양, 골프장 개발 등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을 가장
- 자금결제모바일카드, 벨소리 다운로드 등 휴대폰부가서비스사업을 가장
- 기타 무수익채권 투자, 프랜차이즈 사업, 대체에너지개발 등 사업 가장
- **투자사기로 의심되는 업체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유사금융**



조사팀 ☎ 02-3786-8157~8 또는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
리사범 통합신고센터' 국번 없이 ☎ 1379에 신고해주세요.
■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공보실 홍보팀 ☎ 02-3771-5805

무료검진 안내

인천광역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서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및 의료 소외 계층에게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빈혈 검사

- 기간 : 11월 10일(월)~11월 14일(금)
- 장소 : 인천광역시의료원 1층 (내과7)
- 대상 : 인천시민에 한함
※ 주민등록증은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시간 : 오전 8시30분~오후4시
- 검사항목 : 혈액 검사 (CBC)
- 인원 : 100명
- 문의 : 인천광역시의료원 내과 7 ☎ 580-6038

2. 전립선비대증 검사

- 기간 : 11월 24일(월)~11월 28일(금)
- 장소 : 인천광역시의료원 1층 (비뇨기과)
- 대상 : 인천시민에 한함
※ 주민등록증은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시간 : 오전 8시30분~오후4시
- 검사항목 : 전립선 특이 항원, 소변 검사
- 인원 : 50명
- 문의 : 인천광역시의료원 비뇨기과 ☎ 580-6073

도서관에서 가족과 함께 책 이야기 나누어요

부평기적의도서관에서는 2008년 연중프로그램으로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한 권의 책으로 가족 모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
다. 늦가을 저녁, 부평기적의도서관에서 가족과 함께 모여 즐거운
책 여행을 떠나요.

- 행 사 명 : <책을 만나다. 친구생각 + 내 생각>
- 행 사 일시 : 11월 27일(목) 오후 7시~
- 장소 : 부평기적의도서관 공연장 어울림
- 대상 : 도서관 어린이 및 가족 이용자 누구나
- 이달에 만나볼 책 : <꿀지>, 이영경 글.그림
- 내용
- 영상으로 만나는 책 이야기

- 책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
- 함께 동요 부르기 및 작은 공연

■ 문의 : 부평기적의도서관

☎ 505-0612~3(www.bpml.or.kr)



문학경기장 내 풋살경기장 이용하세요

문학경기장에서는 부족한 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선용의 장을 제공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경
기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풋살경기장을 지난 9월 1일 개장
해 운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개장일자 : 9월 1일

■ 신청자격 : 인천시민 누구나

경기장 구역	운영시간	이용방법	이용요금	비고
20m×40m (풋살경기장)	06:00~ 22:00	1시간 단위로 신청	• 신청 - 평일 : 주간 30,000원 - 주말(휴일) : 주간 40,000원 ※ 야간은 10,000원 할증	

- 타 경기장에서 논란이 되었던 페타이어나 재생타이어 칩을 사
용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한 폴리에틸렌 및 탄성 프라스틱 사출
칩을 사용하여 천연 라벤다향이 나는 상쾌하고 쾌적한 환경에
서 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 풋살 경기장을 이용한 어린이 축구교실(6세~8세/월 5만원) 및
주부무료 축구교실(1개반 20명)을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
니다.
- 문의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 456-3022

토지정보 인터넷 서비스 이용하세요

우리시에서는 토지정보의 전산화 구축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
서,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 중개업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
열람 및 민원발급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실시간
으로 군·구 민원발급서비스 DB를 공동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는 인터넷 민원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열람한 자료를
무료로 출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토지정보의 열람 및 민원발급은 본인 확인절차 없이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회원 로그인' 등
의 불필요한 기능을 없애 누구나 손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
니다. 우리시 토지정보 인터넷서비스는 시홈페이지(자주 찾는 서
비스 : 토지정보)를 통하거나 klis.incheon.go.kr/sis로 직접 접
속하면 됩니다.

■ 문의 : 시 토지정보과 ☎ 440-4573

유비쿼터스, 스마트 홈, 지능형 로봇 ... 미래를 오늘로!

인천지역 최대의 정보통신 전시회로, 최첨단 정보화 산업도시로 거듭나
는 인천의 현 주소를 소개하는 제7회 ITC 2008 인천국제정보산업전시
회가 '미래를 오늘로'를 주제로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송도 컨
벤시아 전시장에서 열린다.



참가업체가 인천지역 소재 업체에 국한되어 있던 지난 전시회와
달리 올해부터는 전국 IT업체로 확대하였는데 KOTRA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B2B와 B2C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국제적 비즈니
스의 장과 해외진출 성과창출에 초점을 둔다. 참가업체는 총 200개사(해외
업체 50개사 포함), 300부스(4천200㎡)의 규모이다.
이번 전시회는 RFID/USN분야 등 차세대 신사업 분야와 정보통신 산업분
야의 현재와 미래 발전상을 엿볼 수 있는 신기술 및 제품들이 대거 선보여
국제 IT전시회로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은 물론, 국내 다양한 분야의 IT업계
로부터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KOTRA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많은 지역 IT기업들이
계약 및 상담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글로벌 비즈니스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전시회 기간 중
전 세계 10개국 50여 개 기업의 빅 바이어와 유력 바이어가 전시회 개막일인 11월 13일부터 14
일까지 이틀간 전시장에 상주하며, 부스 참가업체 및 별도 상담을 신청한 국내 업체를 대상으
로 활발한 상담을 할 예정이다. 행사장 내에 위치한 상담장에서 '글로벌 IT수출상담회'와 '사
이버 수출상담회', '지역 유망 SW기업 On-Off Line 수출상담회' 등의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
가 진행된다.

지역별 유망 IT업체 제품 전시 이외에도 이번 전시회에서는 내년 2009년 8월 7일부터 10월 25
일까지 80일간 개최되는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홍보관과 물류 및 IT비즈니스, 엔터테인먼
트가 복합적으로 계획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한가운데에 세계 최고, 최대의 로봇테마파크가
조성될 '인천 로봇랜드' 홍보관, '2009 세계로봇축구대회', '실감형 3D 기술' 홍보관 등 인천
지역의 특화된 유망 IT기술 특별관을 마련하여 일반시민을 물론, 대외적으로도 적극 홍보할 예
정이다.

문의 ☎ ITC박람회 마케팅지원팀 250-2141

The First Public Museum In Korea



Near Incheon city museum

Tourist : Excuse me. Can you help me, I'm lost?
Citizen : Certainly, where would you like to go?
Tourist : I'd like to go to the city museum but I can't find it. Is it far?
Citizen : No, not really, it's about a five minute walk from here.
Tourist : Maybe I should call a taxi.
Citizen : No, it's very easy, I can give you directions.
Tourist : Thank you, that's very kind of you.
Citizen : Not at all, just follow this street to the main intersection and then make a left turn.
Tourist : Thanks for your help.
Citizen : You are very welcome, I am sure you will find it.
Tourist : Have a nice day!

인천시립박물관 주변에서

여행객 : 실례합니다. 길을 잃었는데 좀 도와 주실 수 있나요?
시민 : 물론입니다. 어디에 가고 싶으십니까?
여행객 : 시립박물관에 가고싶는데, 박물관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네요. 많이 먼가요?
시민 : 아니요, 멀지 않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5분쯤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여행객 : 아마도 택시를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시민 : 아닙니다. 가기 쉽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행객 : 고맙습니다. 참 친절하시군요.
시민 : 천만요. 큰 교차로 쪽으로 이 길을 꼭 따라 가시다가 왼쪽으로 좌회전 하십시오.
여행객 :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 : 천만요. 시립박물관을 금방 찾을 수 있을겁니다.
여행객 :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글 · Jon Sproule 인천영어마을(www.icev.go.kr)강사

Incheon City Museum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was the first public museum in Korea, and opened in April 1946. The museum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s of researching and studying the local history and the cultural assets of the Incheon Area, and exhibiting the results as well as providing public space for the citizens.

In 1990, the museum moved to the current building, which symbolizes the dolmen on Mt. Cheongnyang, providing a view of the Yellow Sea. Since then, the museum has deployed various community education programs and survey activities for the public.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한국에서는 처음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박물관으로, 1946년 4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립박물관은 시민들에게 공공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천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산의 조사와 연구를 하고 그 결과물들을 전시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박물관은 황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청량산 위 고인돌을 상징하는 기존 빌딩으로 1990년에 이전했습니다. 그 때 이후, 시립박물관은 대중을 위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들과 설문활동들을 전개 해오고 있습니다.

‘태양과 바다’를 맛본다

해노랑

인천의 명품 구운 과자



인천이 자랑하는 건강한 농산물 속노랑고구마와 강화인삼으로 만든 품격있는 선물용 구운 과자 해노랑이 출시됐다.

대한민국 제과명장 1호의 손끝으로 빚어낸 해노랑은 밀가루로 빚은 얇은 피 속에 속노랑고구마가 앙금형태로 함유돼 있다.

강화 인삼은 단맛을 억제하고 제품의 향취를 고급화시켰다.

해노랑은 인천을 방문한 내·외국 관광객들의 관광상품 혹은 초대, 기념일, 명절 등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로 적합하다.



제조처 : (주)박찬회和菓子(인천 서구 가좌4동 336)

문의 : 인천시 위생정책과 440-2763

늦가을의 설움



조덕주 作 · 51cm×41cm · Oil on Canvas · 2004

늦가을 포리(소래 포구)의 역사는 가슴까지 빨강게 타들어갔다. 동넉마을 염부의 땀 흘린 소금창고는 이제 저 혼자 포리를 지킨다. 그 황량함 속에서도 갈라진 갯벌을 사는 작은 움직임들 여전하다. 그제 포리는 늦가을의 서러움을 주체하지 못한다. 철없는 아이의 발걸음도 반겨주던 붉은 억새풀속 미로도 이제 기억조차 아스라하고 검게 타버린 내 아버지의 한숨도 하늘나라에 갔지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들과 풀과 갯벌만이 늦가을 바람 포리의 회한을 이야기한다. 포리는 먼 옛적부터 여기에 있었다. - 조덕주

빛나는 내일!

80일간의 미래도시 이야기 그리고 세계인의 만남
미래도시 인천이 세계인들과 함께 21세기 도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즐거움과 감동을 나누는 시민축제입니다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Global Fair & Festival 2009 Incheon, Korea

2009.8.7-2009.10.25

장소_ 송도국제도시 제 3공구 일대, 센트럴파크, 투모로우시티, 송도컨벤시아 외 인천시 전역

주최_ 인천광역시

주관_ 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원회

www.incheonfair.org

